朝鮮日報

今日四面

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農村의危機에對한
救治策의一面을論함

一

朝鮮總督府의產米增殖政策은 勿論其他一般農村振興必要論者의主張하는바에依하면 朝鮮의經濟的危機를救治하라면 무엇보다도 農業的生產의增殖을圖함에잇다한다 그리고農業的生產의增殖을圖하라면 農業上技術을向上식힘에 다시말하면 在來農業經營上에應用하든諸方法을 近代式으로改良함에잇다한다 이것은無論 그理想에잇서 妥當한바이다 그러나이러한抽象的 理想的意味의妥當性을强調하는 反面에儼然한現實에矛盾性이潛在한것을 看過하야서는안될것이다 밧구어말하면理想的의妥當性이現實化하는過程에잇서 現實에그것을融和할만한可能性이缺乏되는때에는 도리어理想的妥當性이現實을害毒함이잇다함이다

二

農本國의經濟的危機를救治함에 農業的生產의增殖을圖하는것은當然以上의當然이어니와 農業的生產을增殖케함에 農業經營上諸條件을改良함에잇다는것은 皮相에흐르는論이라아니할수업다 何故오하면經營上條件더욱히技術的方面의改良을圖함으로써 農業的生產이多少의增殖을示할것은 無疑이事實이라할것이다 그러나增殖된生產에依하야 農業經濟의危機가救治되지못할것은 明白한事實이니 그것은一般資本的經濟界를支配하고잇는 通則에準하는外닭이다 즉增殖된生產이農村危機의對象이되야잇는 小作農民의生活安定을 與하는資料가되지못하고 少數의豪農을 더욱少數로하야 그들의利潤慾과享樂慾을充足하는資料를지음으로써이다

三

그럼으로 吾人의觀察으로써하면 現下朝鮮의經濟的危機가비록農業經濟의動搖窮迫에잇다할지라도 그것을救治함에는農業經營上技術의改良도改良이려니와 그보담도耕作制度의變革이根本的意義를가지고잇다고斷言한다 朝鮮農村의變遷된經路를살피어보드래도 判斷하기에無難할것이니 耕作面積의擴大와耕作上諸技術 即種子 施肥 耕耘灌漑等의改良 生產統計數字의膨脹等은 最近十數年來에잇서 顯著한事實이되야잇슴에不拘하고 農民의不安과 農村의危機는더욱助長되고잇는事實에徵하야보면 農業經濟의危機가 第二次的인技術的方面의危機가아니라 第一義的인 制度의不具에잇는것을雄辯으로說明하는것이라한다 그러면 制度上缺陷은 那邊에在한가

四

그런데制度의缺陷은 兩方面으로考察할수잇나니 其一은土地所有階級과 土地耕作階級의間에形成된傳統的主從關係가 資本主義的으로 完全하게變態하지못한外닭에 小作人은地主에게名分的인主從關係에依한搾取 즉勞力 賄賂等以外에資本의利潤을提供하게된다 그리하야中世的인耕作條件을脫하지못함으로 二重小作人의生活이不安을感하게되는것이다 第二는所謂近世的인 小作制度 즉資本主義에立脚한相互關係에잇서 小作人生活이威脅되는것이다 그럼으로 前者의境遇에잇서서의 奴隸的인條件을撤廢或은改良하는것이 當面의解決方法이오 後者의境遇에잇서서의缺陷된바를 改革或은廢止하는것이 그根本的解決方法이될것이다 이와가티兩者의境遇에善處한다는것이 小作人運動의基調가되는바이어니와 農業經濟의危機를救濟하라면 技術上改良을論하기前에 制度上缺陷에對한改革을斷行하지아니하면不可한緣由가여기잇다한다

五

이와가티考察하여보면 大義名分的인 土地改良論이나 農村振興策이나 所謂產米增殖策이나 모두가 生活이安定狀態에잇는豪農이나地主의 肥滿을一層더肥滿케함에不過할것이오 實際에不安하고窮乏한小作人의生活狀態는 技術改良에依하야經營上에惠澤을被하기는姑舍하고 몰이어農業의集約化와農村의負擔의膨脹과 收支에不相應한 生活向上으로말미아마 一層惡化될運命에잇는것이撤廢치못할事實이다 於是乎吾人은 農村振興 生產增殖 土地改良等의大義名分論에 盲目滅法的으로首肯하지아니하고 몰이어小作人의自覺에依한 團結運動의發達에다더만흔期待를가지고잇는터이다

英墨外交關係復活

(倫敦二十八日發) 英國、墨西哥間에 外交關係가恢復될意로이發表되엿더라

英佛戰債協定과
英國官邊의生色내는聲明

(倫敦二十八日發) 倫敦『데일리텔레그래프』는英佛間戰債處理協定의條件에關하야 英國官邊은右는佛蘭西를現下의財政窮狀으로부터救出하는意味로 佛蘭西銀行에貸出하기爲하야此를許하엿다고述한다報하더라

人類는모다同胞
戰爭은基督精神에違反
◇基督敎大會戰爭反對決議

(나오·엔二十七日發) 『스톡홀름』에開催中인萬國基督敎大會는 二十五日會議에서戰爭은基督敎의精神과絕對로兩立하기難하다하야 戰爭에反對하고且仲裁裁判所判決을拒否하는國民을侵略者로看做한다는決議文을可決하엿스며 또大會에出席한敎會代表는世界의人類는同胞라하는組織을促進함에努力하기를會議하엿더라

癌病元體發見
英國學者에依하야

(倫敦二十九日發) 各國學者의勞心하는癌의病元體를 『이·씨나드』氏가發見하얏다하야 倫敦學界에서는非常히驚嘆하얏다 『씨나드』氏는元來有名한學者로 英國醫學界에서該病元體를發見함에外지至한經路를述하고 且病元體의寫眞을公開하얏더라

西班牙獨裁官
모로코向發

(마드리드二十八日發) 西班牙獨裁官『쿠리모·데·리베라』氏는 此數日中에『모로코』로向하야出發할터이더라

對英罷業解決困難
總工會依然强硬態度持續

(上海二十九日發) 對日罷業은全部解決됨에鑑하야 英國總領事도最近嚴히戒嚴司令과交涉하야 英人經營의開業을急히하라하나 總工會는依然强硬의態度를持續함으로 對英罷業의解決은極히困難한模樣이더라

關稅會議와獨逸
機會를닷하自由行動할터

(伯林二十九日發) 外務省은關稅會議에關한獨逸의態度에就하야 合同通信社員의質問에如左히發表하얏더라 獨逸은中國關稅會議參加招請을受치안앗슴으로 獨逸은徐徐히觀望하야適當한政策을執하겟다 獨逸의對中通商關係는最惠國條款을基礎로할것임으로 關稅會議終了後獨逸은自然的으로此의列强이中國에서受할과同樣의待遇를受할수잇고 萬一會議가獨逸의利益에關係되는特殊問題에觸할境遇에는 獨逸의權利를保護하는態度에出할것이다

回答은各國個別히
不平等條約修正問題

(東京電) 不平等條約修正問題에關한八個國의對中同文回答은 二十九日伊太利公使『셀치』氏로부터一括하야沈外交總長에게手交하려하든바 右八個國中에는本國政府로부터承認回訓이아니온데도잇슴으로 이미承認回訓이온나라것만本日中、其國公使로부터各各沈總長에게手交하기로되엿스나 二十九日手交치아니한나라도不遠間手交를終了하리라더라

會議參加에
英國이最初回答

(北京二十九日發) 英國代理公使는二十九日에外交部를訪問하고 英國政府는特別關稅會議招請에應諾하는旨를正式으로回答하엿더라

日本回答은
沈總長에交附

(東京電) 去六月二十四日發執政府로부터日英米佛其他關係列國에對하야發한不平等條約修正要求에對한日本政府의回答文은 二十九日夕刻駐中芳澤公使로부터沈外交總長에게手交하얏다 該回答內容은諸要求個個의問題에就하야其歷史的關係를逐一詳述한것이더라 此는列國中最初의回答이더라

公文全部發表

(東京電) 今二十九日日本政府의不平等條約修正問題에關한回答은 芳澤公使로부터中國外交部에手交되엿는데 右回答文은同日午後五時頃外지에外務省에서公表될터이라더라

關稅會議
中國側委員候補

(北京二十九日發) 關稅會議의中國側委員은아직決定되지아니하엿스나大體左의諸氏가任命되리라더라

外務總長
財政總長
農商總長
交通總長

沈瑞麟 李思浩 莫德惠 葉恭綽 顏惠慶 王正廷 蔡廷幹 梁治浩 楊永泰

等九氏이오又施肇基、王寵惠二氏도下馬評이잇더라

失業者十五萬名
武漢工學會救濟方法協定

(漢口二十六日發) 漢口에서는上海事件以來各工場의同盟罷工、漢口事變其他의事件이續出한結果 最近에는失業者數가이미十五萬에達하엿다傳來하는바 武漢工學會에서는此救濟法으로左와如히協定하엿더라

一、工人自救法 各業工人은失業工人維持會를組織하야工人互助의方法에依하야 失業者의不良行爲를警戒하야社會의安寧、職業을圖得에援助를할事

二、各界救濟法 各界에서失業工人救濟會를組織하고 救濟資金其他를募集하야食糧의不權及調節을圖謀할事

三、政府에救濟要求 社會의安寧、人民生活의責任은政府에잇슴으로 此際失業者의實況을報告하야救濟方法을要求할事

敎育、學生等
政治運動嚴禁

(北京電) 近來學生의一部敎員과結託하야學界의紀綱을紊亂히하야繼續히政治的運動을함에鑑하야二十六日執政令으로學生敎員의行動을誡함과同時에學父兄에게對하야도嚴重한監督의責을通告하얏더라

袁氏日本訪問

(北京廿九日發) 水力總裁袁良氏는特別關稅會議에際하야國民外交部에依하야日本의輿論을喚起코자日本을訪問케되얏더라

勞農露國
通過規程
露全土에適用

(哈爾賓電) 向者모스크中央執行委員會는모스크獎을通過하는外國人에關한通過規程을發表하는바 今回此를露西亞全土에適用하기로決定하엿다는情報가哈爾賓에來하엿는데 其內容은如左하더라

一、通過査證을得하야『쏘베트』領土內를通過코자하는者는 一般的規定에依하야는途中滯在를不得함

二、滯在는如左한境遇에限하야此를許可함 汽車汽船의待合所乃至聯絡地點에서乘替할時、又는重病을因하야醫師가旅行繼續을不可能하다認하는境遇、但此에는家族其他帶同人에게도滯在를許可함

三、만일以上의理由로二時間을超過할境遇에는 其滯在에關하야停車場內의駐箚執行委員會出張所에申請하고 國境職인境遇에는國家保安支部長又는其代理人에게其旨를屆出할事

四、滯在의必要를生한場所에서만滯留할權利를與함

五、滯在地에서出發코자할境遇에外國人은滯在許可를受한期間內에其旨를通告할事

六、滯在者의通過期限이完了치아니한境遇에는何等의手續을要치안코此를有效로認함

七、만일通過査證期限이完了한境遇에는滯在地의縣執行委員會支部에出頭하야延期를申請할事

八、만일外國人으로以上의規定을犯한者는違反者로하야法令의處分을受할事

露機出發
大邱를向하야

(北京三十日發) 露國飛行機二機는本日午前五時十五分當地發大邱에向하얏더라

大規模의
航空演習
參加機五十餘臺
◇九月二十一日부터

(東京電) 日本陸軍國防의一頁을裝飾할航空演習은 九月二十一日부터十日間利根川畔茨城、栃木、群馬、埼玉諸縣下에亘한關東平野에서擧行할터인데 此計劃은目下陸軍에서進行中인데 [illegible] 十七飛行機及 [illegible] 五百餘臺의多數에達 [illegible] 偵察機六十臺 [illegible] 編成하야 [illegible] 參加식히고 [illegible] 部의總動員으로動作할豫定인바 [illegible]

聯盟總會
日本代表決定

(東京電) 二十九日附로所報와如히石井駐佛、安達駐白兩大使、松田聯盟公使에對하야第六回聯盟總會日本代表를命하는同時에 長井瑞典公使以下十八名에對하야同代表隨員을命하엿더라 本總會는九月七日로開會할豫定이더라

合同派의最後手段
相互解體하야新黨樹立
◇本黨側의態度가疑問視

(東京電) 大木伯等四人派의政本合同實現運動은最近또田中政友會總裁의歸京을機會로나러낫는데 護憲三派協調內閣當時에는자조本黨으로向하야本黨으로부터自進하야合同하기를勸誘하엿섯스나 其後政變이이러나자政權獲得을目的으로하는政友會側의策動에依하야 急造的形式的인政本提携는成立되엿스나 本黨側自重派에게妨害되야其以上急進치못하엿다 最近에至하야本黨側의結束이意外에强하야 到底히本黨側으로부터自進하야政友會에合同한다는等事는可能치안음을知하고 四人派도其方針을變하야 [illegible] 兩黨이解黨하야新黨樹立의目的으로 [illegible] 目下奔走中이라더라

多額議員選擧와
政府의對策
內務司法兩省協議中

(東京電) 多額納稅議員의選擧는候補者가이미出現되야 各候補者의投票收買運動이날로猛烈하야 有權者의意思表示明確을缺하야 [illegible] 하기爲하야서도各有權者의自由投票를妨害하는等 [illegible] 不買手段에依하야 [illegible] 此를防止할必要가有하다하야 內務司法兩省에서特殊命令을發하려고目下協議中이더라

地震이업스면
大洪水가必至
獨逸스博士陳述

(사쟌뿌론) 二十七日當地大學敎授『박스』博士는二十七日當地國化學協會大學席上에서 日本의大震災及世界各國地震에就하야如左히말하얏더라 만일近海上及陸上에地震이起치안코보면 今後는世界的의大洪水가바다시起할것이니 그理由는海水의浸蝕作用은非常이强大한만陸地를蝕하야海面과同一케할虞가有함을因함이니 그러나如斯한災厄이起치안는것은地震이起하야地面을隆起케함을因함이라云云

土地增加稅
當分은保留

(東京電) 多年의懸案이든土地增加稅問題는昨年十月頃內務、大藏兩省의意見이完全한一致를見함에至하야 直히成案을作成하야此를法制局에廻付하얏는데 同問題에關하야는當初政府에서稅負擔의公平을期하는見地에서不可不此를實施하라는決意를有하야 法制局의審議가終了하는대로此를閣議에附議하야 其決定을待하야上奏하고樞密院에諮詢의手續을取할豫定이엇섯는데 其後第五十議會에서公正會의阪谷芳郎男으로부터同問題는國民生活上重大事件임으로 法律案으로하야議會에提出한後協贊을經할必要가有하다고力說하야 暗默히强硬한反對意見을表示한外에 其後全國各地의富業乃至大地主階級의猛烈한反對가有하얏든것에鑑하야 此等의反對意見을不顧하고當初의方針대로實施한다면 政府는各種問題에서極히不利한處地에陷하야其影響되는바頗大할것임으로 同案을法制局에廻付한대로問題의進步를圖치안코在再今日에及한것이다 그런데마침稅制整理의方針이閣議에서決定되얏슴으로 自然問題도課稅方針에影響될것임으로 [illegible]

幼稚園令制定
調查立案中

(東京電) 文部省에서는多年의懸案인幼稚園令의制定을此際에實行할方針으로目下調查立案中인데 該令의內容은九月中에는省議를決定하고 幼稚園令을初等敎育의系統中에加하야統一的制度를確定코자하는것으로 歐米先進國의組織을斟酌하야成案하는것이라더라

潛艦引上作業
第二回實驗도成功

(東京電) 沈沒潛水艦의救護引上作業은二十八日橫須賀軍港內에서特務艦朝日에依하야實驗되얏는데 三十三尺의海底에沈下한一號潛水艦을約一時間에無事引上을了하야成功하얏더라

全國貿易
七月中概況

(大阪電) 下旬의全國主要港十一港의對外貿易은輸出七千百六十六萬三千圓(前旬보다三十九萬餘圓增加) 輸入四千三百八十七萬一千圓(前旬보다二千七百二十七萬六千圓減少)으로結局 二千七百七十九萬二千圓의出超를示하야 八月中의것을總計하면四千百萬圓의出超인데 下旬에橫濱의出超는三百圓을減하고 大阪의出超도棉花輸入의增加와 [illegible] 減少에止하얏스나 [illegible] 一月以降累計入超는二億八千百萬圓으로減少하얏더라

鐵筆寫眞
赤露「오냐! 네배야 골리겟니」
投稿歡迎

太平洋會議雜觀（二）
七月十三日 布哇에서 金良洙

다시個別的으로細部關係를한다하면 日本은移民問題를中心으로하야 米國과및英國의各自治領에 左衝右突을하는수밧게업스며 이에反하야米國과英國의各自治領은 될수잇는데까지日本의鋒鋩을 엽흐로避하는수밧게업습니다 다만이中에米國은直接으로第一線에挺立한다는것보다 돌이여英國의各自治領을內容으로操縱하야 婉曲한術策을펴는것갓습니다 또中國은米國의庇護에依하야列國의諒解와同情을求하는것가트나 米國은米國의立場이잇고 日本은日本의立場이잇스며 또英國의各自治領地는 各自治領대로다다른立場이잇지안켓습니가 그러함으로人種이다르고 거긔에內容의內幕이잇고 또各各의利害와處地가서로다른以上 이와갓흔複雜한紛糾가잇슬것은 다시議論할必要가업습니다 勿論이와가티모든利害와處地가서로다르기때문에 서로다르기때문에 서로紛糾가잇는것이오 今番에도各民族의代表가 서로一堂에會한理由이나 及其形實問題에이르러 제各其다自己의立場을도라볼때는 모든理想이제절로雲散霧消하고마는것을 엇지할것입니가? 이點에잇서人類社會의 幻滅의悲哀가잇다할것입니다

假使移民問題를가지고말합시다 오늘날全世界가鎖國主義의時代가아닌以上 누구나原理原則으로보아 門戶를서로開放하야有無를相通하는것에對하야는 秋毫라도非議할餘地가업슬것입니다 그러나 거긔에人種의差別을가리고 文化의優劣을論하며 또生活程度의高下를藉籍하야 外國人의入國을禁斷하는것은 이것이文明의逆轉이아님니가? 그런데되지도못한似而非的理論을 맨드러서 國家가다어正當防衛라는 것은 이것이넘우甚한橫暴가아님니며 實로言語道斷의行動이아니라할수업습니다 그러나以上은理想論이오 現實論은아님니다 排日論者가말한바와가티 自家의擁護에汲汲하는것이 現實인가합니다

別한讓步나잇다하면모르거니와 그러치못한限에잇서서는 서로서로다투는수밧게업슬것입니다 여긔에切實한意味의生의葛藤이 잇지안켓습니가? 이러한生의葛藤에 어느程度外지는是非와善惡의判斷이잇기는 하겟스나 그程度를 버서나면 다만生物과生物과의互相對抗에 그치는것이만흔것이現實의實例인가합니다 그럼즉日米兩國間의 또는日本과英國의各自治領과사이의複雜한移民問題도 要컨대그焦點은民族과異民族과의 生의鬪爭을 조금大規模的으로演出한것에不過할것입니다 이點으로보아人類社會는 아즉도依然하게地上에營足하야사는 凡俗한動物의一集團이지요!

日本代表者들이 제아무리五十年前의米國페리提督을새삼스럽게讚揚하며 또我田引水的의正義人道를主張하며 또或은한때내놓이날번하얏든『重大한結果』를되푸리하드래도 米國사람은 아조귀가예도들리지안하는모양입니다 하물며日本代表者들의 서투른英語가으로는다시 英語敎師와生徒가 서로會話演習이나하는가십흔感想이잇스리다 每樣이世上에서는弱者의處地에잇는사람일사록말을바르로하는 것이니이제日本代表者中의東京帝大敎授로잇는高橋博士의立論을 暫間紹介하겟슴니다

『무릇人間生活의移住의欲求는 人間의本性이라하야도過言이아니다 即食物이나智識이나或은風景이나其他의모든것을欲求하기爲하야 人間은不斷히이곳에서 저곳으로移住코자한다 그리하야이移住의欲求는 現代에드러와交通機關의發達을따라 더욱더욱頻繁하야가라함은 다시多言을不要할바이다

…그럼으로이러한移住의本能을萬一十八世紀式의語法으로써말하면『人間自然權』의하나이라고도斷定할수가잇다 그런데一國內에잇서서는 自國人임과外國人임에不拘하고 移住의自由는現代國家에서 다가티一體로保障하는바어니와 一段國際的關係의方面에잇서서는 國境이라는障壁을쌋코 이러한移住의本能을 極力拒否코자하는것이 오늘날多大數의實例인가한다 이것이先占者의旣得權利를擁護하자는手段이니 國家의主張이라는名稱下에 이와가튼人間의本能을 忌憚업시蹂躪함이아니냐

…그러나일즉히十八九世紀의一般思潮가 私有財產權의無限絕對를妄信하야 여러가지流弊가續出하거와가티 萬一國家의主權이 어듸외지最高絕對의그것이라하야 조금도互讓協調의態度가업슬진대 오늘날國際生活은 結局獸道의修羅場이되고말것이다

그럼으로나는 移民에關한國家主權의行使에對하야는 반드시全人類의利益과要求를適當히考慮할것이요 自國民의利益과感情을 不當히制限할수업는거와가티 他國民의利害와感情도 相當히尊重치아니하면아니되겟다는것을 極力說코자한다 이러한見地에잇서 各國의移民政策에 左와如한四五個의原則을採用하는것을 要望한다』하얏습니다

이제氏의移民政策에對한 五個條의原則이라는것을列擧하면

第一、入國許可의條件又는基準은 어데外지客觀的이요 公開的이라야할것

第二、國家平等의原則을 無視치아니할것

第三、此等의條件又는基準을行使함에는 規則的이라야할것이오 專斷的으로하지아니할것

第四、人種又는國籍의區別에因하야 差別的待遇를하지말것

第五、入國制限의條件又는基準에對하야는 年齡 健康 敎育 品性 資產等의 全히個人的資格에限할것等의以上五個條이외다

通話度數制
自明年實施意嚮

交換臺의收容餘力이無한中央電話局에서는 此以上通話度數가增加하면局舍를增築擴張하거나 他에適當한方策을講치안흐면能率에不足을生할것인데 如何히通話濫用의不可를叫할지라도一向効果가無하고 此結果로逐히通話의使命에도反하는것이라는見解로부터 此의緩和策에就하야는數年來研究되든바 局舍의擴張就中自動式交換等의方法은 將來大京城의出現을隨하야必然的으로考究함만한理想的施設일것이나 現在에도財政的으로至難한事情만無하면當局者뿐아니라一般으로恒常欲求하는바인데 現今의財政狀態로는到底히此方面에對한餘力이無함으로 遞信局에서는日本의主要都市에서好績을得하는바인度數制로改하야 明年度부터實施코자機器購入費其他十五萬餘圓을要求함에至하얏는데 此가實施되면現行使用料를半額以下로低減한代에 一通話마다二錢乃至三錢의通話料를徵收케되리라더라

米價大勢는如何
反動으로低落될듯

今年의米價에就하야는大多數가昨年同樣의觀測을하야 十一月十二月에는相當한高價를見하리라는데 昨年은材料過多의感이有하야 十一月十二月과如히石井定七買占以來의大市勢를現出하얏스나 前年의凶作後를受한朝鮮內도作況不良의結果如斯한市勢를見함에至하얏는데 本年은大體로平年作으로보겟고 朝鮮內는豐作에近함으로 其材料에現著한變化가잇고 且節米의關係도잇스며 補給食으로豐富히入來한反面에 財界의不況은益益深刻하야지는際에 米價만獨히超然하기는不可能할것이라思한다 又況殘存米는豫想以上으로多하다함으로 出廻旺盛의時期가來하면自然反動低落을免치안흘外한다云云(某消息談)

朝鮮紡織總會

(東京電) 朝鮮紡績會社는二十九日午後株主總會를開한바 當期損益金을承認하고 社債又는借入金에關한件二百五圓을限度로하야 社債發行又는借入을하되其方法時期는取締役에게一任할事、會社所有財產에對하야工場財團을設定하야擔保에供할事等을一切承認하얏더라

馬尼拉行電報遲延

二十八日來上海馬尼拉間海底線이不通되얏슴으로 馬尼拉行電報는長崎經由香港을迂回하게되야遲延을未免한다더라

八面鋒

○平北孟山郡에서는、방알만한아이를生產한이가잇다

○이아이는人生第一着의難關을 至極圓滑하게通過한모양

○覺世敎라하는近處에서는、婦女의斷髮을斷行시켜서、家庭의平和를攪亂한다고

○상투를奬勵하는普天敎보담은 覺世가조금過한셈

○自己고켜말고適當한事件은勿論이漸漸늘다

○自己것을빼앗기고死滅을當하는 朝鮮人運命의小縮圖!

●陰莖
完全한生殖器的還少法
『프레사─』
日本政府新案特許第八六一三○九號
●프레사─는男子에年老及各種의原因으로生殖器의 [illegible]
◆프레사─(男子不能者의專用具)五圓五十錢
●特製프레사─(男子不能女子不快感併用) [illegible]
◆프레사─說明書無代進呈
東京赤坂溜池 東興堂化學工業社 振替東京三三三番

◇스타─필님社特作品 伊太利加의魂 全十卷
◇스타─필님社特作品 [illegible]
◇米國파라마운트社 箱子에든아들 全五卷
◇파라마운트社 暗夜의患者 全八卷
◇스타─필님社提供 천지의분쟁 全二卷
名畫 子煩惱 全八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五番

最有利한副業
免를飼하시오

資本은……種免代와若干
飼料는……路傍의雜草
飼育은……婦女兒童도能함
用途는……食肉과毛皮
繁殖은……年五六回以上
販路는……本場에서永久買入
利益은……五頭母免로부터
一年益五百圓
說明書要 各地에支分場急設
二錢切手 希望者는申込하시오
朝鮮養免場
開城高麗町一七五番地 振替京城六武參九番

和洋椅子箱木箱家具其他土建工事設計監督請負
親切叮嚀信用遵守
遠近地方注文特別廉價提供
京元線鐵原邑內
三友組工場
電話一○七番

登錄商標
趙膏藥
主治効能
諸般腫瘍、濕瘡、乳瘡、痰瘇、結核、結痰、落傷、瘀血、肩臂腰痛等症及一切無名瘡毒等 初發時貼付則止痛 消散自解成瘡後貼付則外 透紅發膿次消抑中心渡拔 自潰去液生新速治完合之神妙藥也
藥價 小包金五錢 中包金十錢 大包金二十錢
▲到處信用잇는藥局及雜貨店에셔모다販賣하압
藥種貿易商 京城禮智洞 天一藥房 振替京城三○七番 長電話(光)七五九番

梅毒病者에게急告
弊堂은梅毒內服藥을發賣하오며一面으로는患者便宜를取하기爲하야附屬診療所를設置하옵고診察治療를하는바 今般獨逸製六○六號가多數着荷되얏슴으로 社會奉仕及病者救濟의目的으로하야約三分之一인特價로提供하게사오니 希望하시는분은當附屬醫院에셔注射料는無料로施行함
獨逸製六○六號二千本限하고 特價一本에六圓式으로提供함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八五 本局電話一六八○番 柴崎仁壽堂支店
梅毒淋疾專門 仁壽堂附屬醫院
●梅毒血液檢查 ●尿檢查 ●診察每日朝九時로夜九時外지

市內浸水六百餘戶
時急히해야할下水工事
침수된원인은배수가잘안되여서

이십구일오전부터 부실부실내리든비는 그칠줄 모르고오후에이르러는 세차게 퍼붓게되여요전장마에 놀낸일반시민은 자못불안을 품게되엿는데 밤이된후에도 오히려 줄기차게나리게되여 이로인하야 시내각처에침수가옥이 륙백여호에 달하고한강(漢江)물은 삼십일 오전네시까지 십사척이나 증수되엿다는데 시내에침수가옥이 이러케만흔것은 배수가 잘되지못하는까닭이라더라

◇需昌洞床下浸水七戶
◇內資洞床下浸水一六戶
◇社稷洞床下浸水六戶
◇寬勳洞床上浸水一八戶床下一七戶
◇樂園洞床上浸水二五戶床下七五戶
◇敦義洞 床下浸水六二戶 床下一六戶
◇公平洞床下浸水四〇戶
◇淸進洞床下浸水五〇戶
◇瑞麟洞床下浸水五戶
◇長沙洞床下浸水四戶
◇薰井洞床下浸水八戶
◇授恩洞床下浸水七戶
◇仁寺洞床上浸水一三戶床下浸水五三戶
◇慶雲洞床下浸水二五戶
◇平洞浸水床下三戶
合計床上浸水七二戶床下浸水五三九戶
◇三淸洞全潰家屋三戶

京元線이또 徒步聯絡
전곡동두천간 가교가또류실

지난번홍수에 텰교류실(鐵橋流失)로오래동안교통의불편을주던경원선(京元線)전곡(全谷)동두천(東豆川)간 한탄강가교(漢灘江假橋)는지난이십사일에 완성되야이십오일부터전통되여오든바 이십구일아츰부터 나리는비로한탄강 증수는 이십삼척에 달하야 가교는 다시류실되엿슴으로 전곡 동두천간은도보련락을취한다더라

漢灘江增水
二十四尺으로
구텰도인도교도류실

삼십일오전칠시한탄강(漢灘江)증수는이십사척에달하야 구텰도(舊鐵道)에 가설한인도교도류실되엿다더라

如平에橋梁流失
북한강증수 이십칠척

경긔가평군(加平郡)내는이십구일 오후열시부터 나리는호우로가평천(加平川)에가설하얏든다리가 류실되고 북한강(北漢江)의증수는삼십일오전구시현재가 이십칠척에 달하엿다더라

元山全市에水難
시내로흐르는적전천의증수로 원산전시가에물이들어큰란리
軍隊와各團體出動警戒

수일내로 나리는폭풍우로 원산시내로흐르는 적전천(赤田川)증수가 십오척에달하고 남천(南川)시내물이넘치여 교하동(橋下洞) 룡동(龍洞) 명석동(銘石洞)일대는 전부침수되고 상리일동(上里一洞) 장촌동(場村洞)부근도 전부침수되야 위험상태에잇슴으로 경찰서를 위시하야 각단톄에서는 총출동으로 경계중이라더라(원산지국특뎐)

仁川松峴里또浸水
동민이나와길을끈으려는것을 警察이出動하야制止
埋築工事로

이십구일 이래비로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 매축디 근처에는 또물이들어 송현리 동민은매축공사로 실망하고 길을끈으려하는 것을 경찰이 나와서제지하엿더라(인천지국뎐화)

松峴里床上八戶床下十二戶、
金谷里床上三十戶床下五十戶
松林里床上十二戶床下二十戶
牛角里床下十戶

그외 각동리를 합하면일백오십호가침수 되엿고 삼십일오전다섯시에 우각리큰 길에물이넘엇섯다

北滿寧古塔에도 주민은
불안중에싸엿다

북만녕고탑(北滿寧古塔)디방에는일마동안은 가물이 계속하야 농민들은 자못불안에 싸여잇던바지난 십일경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부근일대(附近一帶)에는 자못물나라로화하엿고 우구자(于溝子)란촌에서는가옥이침수되고 따라서 동포(同胞)한명이 익사하엿다는바 아직까지 비는그치지안앗슴으로 뎐답(田畓)의피해도불소할뿐아니라그디방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자못불안과공포에싸엿다더라(안동현통신)

乙丑青年會
위원선거와 토의사항

을축청년회(乙丑青年會)창립회는예뎡과가티이십이일오후에중림동(中林洞)중앙고무공장에서 추종철(秋鍾哲)씨의사회로개회되여 여러가지토의를 마친후아래와가튼 위원선거와 결의사항이잇섯다더라

被選委員
▲庶務部＝文秉武 李昌燮
▲經理部＝邊健植 林寶喆
▲調査部＝高明錫 秋鍾哲
車今奉
決議事項
一、今般禮泉서突發한事件의眞相을調査하야報告演說會를開催할일
一、在京青年運動에關하야漢陽青年聯盟이나京城青年聯合會이나하야統一이되지못함은運動을爲하야莫大한損失이잇슴이야누가否認하랴 그럼으로우리는그分擔責任이何派에잇는가를調査後正當한處置를할일
一、無產青年子弟로入學이不能한者를爲하야勞働夜學을設立할일
一、青年運動에關한聲明書를發表할일

家崩으로 老婆壓死
헌재목으로
집짓는이는주의하라

고양군 독도면서독도리(高陽郡纛島面西纛島里)삼백팔십 오번디 리씨성(李氏成)의 집은이십구일밤열두시경에 이번비로 문허저서 그속에서자든 리씨성의 모조씨(趙氏)는무참히 치어죽엇는데 그집은 원래지난번홍수에 문허진집재목으로다시지은것이라한다 이집외에도 문허진재목으로지은집이 만히잇는데 이후부터문허진집재목으로집을지을때는특별히주의함이조켓더라

十五歲少女를 中人에팔러든吸血鬼
서대문서에서범인한명톄포

삼십일 오전에 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는십오세되여보이는 어엽분소녀를 불러다가 이말저말을 물어보앗슴으로 서내공긔는 긴장하엿는데 그내용을드른즉 그소녀는동소문(東小門)밧불머리에사는박영조(朴永祚)(五九)의 막내딸 순덕(順德)(一五)이라는데 가세의빈궁으로 인하야 어린딸자식을 작년십월에 시내죽첨뎡(竹添町)이뎡목 일백 이십삼번디 색주가(色酒家)하는 리뎡현(李庭鉉)(三三)에게 륙십원을 밧고 고용녀라는 형식아래에팔게되엿는데 지난이십팔일에 중국안동현(中國安東縣)으로부터 온김춘성(金春成)(四五)에게 리뎡현은 순덕이를 일금이백오십원에팔어 일백오십원을 차지하고 영묘에게주고남이알가두려워하야 급히행장을수습하야 순덕을데리고 중국으로가서 흉측한중국인인육상에게 넘기려고 이십구일 오후급행렬차로 떠나려다가 서대문서 순사에게 발각되여 김춘성을 다려다가 엄중히 취됴를하엿는데이자는 매년사오차식 조선내디에드러와 권긔와가티 어린소녀들을 사다가 천원이상의돈을받고 중국인에게 팔어먹는것으로 업을 삼는자라더라

惡魔主人이 貞操蹂躪後
삼원오원에 매음을강제

별항보도 한바와가티 열네살된

姦夫에게 婚禮費밧고
고소취하한자

전남라주군 로안면룡산리 홍종희(全南羅州郡老安面龍山里洪鍾憙)(三三)는 동군동면김이리 박장화(同郡同面金伊里朴長化)(四三)의처 김씨(金氏)(四二)와 비밀히 정을통하여오든바 홍종희는박장화의 업는틈을타서 박장화의방에서 김씨와 불의의행동을계속하다가 박장화에게 발견되엿는데 김성녀는 어대로도주하고업슴으로 박장화는 홍종희를걸어 라주경찰서에 고소를뎨긔하엿는데 지난이십팔일에 박장화는 홍종희에게 혼례비라는 명목으로 돈백오십원을밧고 취하하는동시에 홍종희는즉시 방면되엿다더라(라주)

琵琶山의 殺人犯人
혐의자한명 대구에서잡엇다

명달전에 달성군옥포면(達城郡玉浦面)비파산(琵琶山)밋 약수터에 일본인삼국태랑(森國太郎)이 무참히 죽엇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 대구서에서는 활동을계속하야 각방면으로 수색에몰두하든중 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경에 대구정거장에서 나히삼십세가량 되여보이는 청년한명이 부녀여덜명을다리고 부산방면으로 가려고하는것을 대구서로 형사가발견하고 고즉시 대구서로 다리고가서 엄중히 취됴한바이자는 상주군옥동면봉계동(尙州郡玉東面鳳溪洞)일백사십팔번디 최암이(崔岩伊)(二八)란자로 부녀팔명을 일본으로 다리고가서 직공에소개코저하야 간다고하며 삼국태랑의 사건은 모른다고한다는바 이자의 태격과년령 등이 국태랑을살해한 범인과갓다하야 본적디인 상주동디로조회하야 그의신분을 됴사한다더라(대구)

信川郡守拘引
연루자도검속

황해도신천군수 심상국(黃海道信川郡守沈相國)은 부임이래 각면장과 읍내모모 불량배와결탁을하여 협잡을하며 심지어 면장하나에 백원면서기 하나에 오십원이라는 금액으로 매직을 한다는 풍설까지나든바 결국시민의 탐지한바되여 면민대회를열며 군민대회를열며 는등 일대문데가되여서 당국으로도 중대시하게되여 여러날을두고 엄중 심문을하여 오든중 이십칠일에는 돌연이해주디방법원(海州地方法院)재령(載寧)검사(檢事)안뎐(安田)씨가 구금을하는 일편 련루자도 다수검속하엿다는데일반은 크게주목한다더라(재령)

江景署도 徹夜警戒
한병긔념일에

무슨일이잇슬가보아서 강경경찰서(江景警察署)에서는 지난이십팔일에 사복경관을 출동식히어 시내에엄중한 경계망을느리고 절대비밀리에서 활동을 개시하얏는대 듯는바에 의하면 합병긔념일임으로 혹무슨일이나 잇슬가우려함이라 한다더라(강경)

警察事故 豫防標語
모집된표어중 중요한것만분포

총독부(總督府) 통계에 의하면 보안경찰방면(保安警察方面)의 취급에관한 작년도의 도난(盜難)이 사만칠천칠백 이십륙건 화재(火災)가 사천오백 륙십칠건으로서 손해가 오백칠십일만 오천삼백 십구원이오 교통방면에는 긔차전차비행긔 자동차우마차등사고가 오만칠천 팔백일건에달하는데 전조선 경찰서에서 이러한종류의 사건을 날마다 취급하게되는 바 금번경무국(警務局) 에서는 일반민중에게 그예방 선전을 엇더케하면 조흘가하야 각도 경찰에『포스타』등의표어(標語)를조회하야 모흔것이 상당히 만흐나 모다대동소이 한것으로서 그중에표뎍표어를 교통위생 도난 화재네종류에난호아 각도에분포하엿다더라

亡父의机筵前에서 有夫女姦通한文在喆
오래동안동사하든친구안해를 금전대차관계로불러다가간통
瀕死의夫를背한女子

목포에사는문재텰(文在喆)은요사히소작 묘디 마부 모든쟁의(小作墓地馬夫諸爭議)로인하야 쟁의다산인물인바 죽은아비 삼년상중에잇스면서 또 용서할수업는죄악을 범하엿다는말이잇다 재텰은수년간 동업하든류중길(柳重吉)(三五)의안해 김용선(金用先)(三一)과 간통한일이 근일발견되얏다는데

그내용을 들은즉류중길은 멧해전부터 폐병(肺病)으로 인하야 신음하다가 지난륙월륙일에완도(莞島)방면에치료할차로려행중인데 문재텰과길용선은 그전에도 엇더한관계가 잇섯든지 는모르나류씨의려행중을긔회로 사십일간에구회이나(四十日間九回)간통을하야 이사실이스스로터저서 류씨의가족의게 전파되매 류씨는칠월십오일 집에도라온후 안해되는김씨의 태도가 이상함뿐아니라 문씨도 이상한 태도를보히는데 김씨는 친에아니면 뎐당배를말며 문씨는 하로에뎐화로 이십회이상의 문병을 할뿐만아니라 류씨가족중에서도 이것을 로골뎍으로 말한일이잇슴으로 류씨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김씨에게 자백을바닷는바 그말에의하면 문씨는자긔로부터 김씨를 불너다가 문씨의거래관계(去來關係)를 무른뒤 김씨는 그이를 표하엿고 문씨는 또김씨를불너다노코『류씨의병은 살겟드냐? 죽겟드냐? 불행히 죽게되면 그의어린이네 사람과 그대의한몸은 장차엇지할것인가? 만일에 죽게되면 멀리구할것업시 갓가히잇는 나와 가튼사람에게라도 그의 장래를 맛기게되면 힘것위해주겟고 주택(住宅)이라도 훌늉히 지어주겟노라』하면서 김씨의 팔을잡엇다 김씨는『웨? 남의팔을잡느냐?』한즉 문재텰은 말하되 그대의팔을잡엇스니 그대의 팔은 이제는『비단』으로싸서두는것이 귀한바라하엿다 그다음

여러날을 두고매일뎐화 또는 심부름군을식여서 자긔의 고요한 사랑에 불너다노코 남녀관계에대한 음담패설을하고 덩명녀학교생도하나를 중매하여 달라는말과 별별야비한 소리로한참동안을 말하더니 결국륙월십사일은 문씨의 망부령위(亡父靈位)의 압방에서 김씨의 뎡조는 유린되고 말엇는데 그후로 김씨와 문재텰 사이에는 회간회수가 아홉번이나 되엿다 함으로

폐병으로 머지안어서죽을알고잇는 류씨는 김씨의몸인정은 고사하고라도 여러해동안동업자 또는친우임을 믈고하고이러한 즘생가튼행동을한 문재텰에대하야 크게분개하야 김씨와는리혼수속(離婚手續)을단행하고 문재텰과김씨는 화간죄로팔월이십일일 당디경찰서에 고소를 뎨긔하얏다는바 문재텰은류씨에게서 일만삼천원이나 바들돈이잇는데 류씨는 이것을 피하기위하야 부부공모(夫婦共謀)하야이와가튼허위행위(虛僞行爲)로 고소를하엿다고반고소(反告訴)를뎨긔하엿다는데 이에대한디방인사는 돈가지고 사람을 희롱감으로아는불량한자본가도괴악하지만은 남편의 죽기전에자긔일신을 위하야 장래동거(將來同居)를예약한것도몰각한 탕녀가아니면 못할일이라고 비난이만타더라(목포)

成川農校生盟休
원인은교장배척에서

평안남도 성천군(平安南道成川郡)농업학교(農業學校)생도 사십명은 지난이십사일 동맹휴학을하엿는데 그원인은 동교교장을배척하기위하야 수개월전부터 분규에분규를더하여오던중 신학긔(新學期)와함께 교장배척(校長)을배척하기위하야 생도삼십명은 련서(連署)로 감독관청(監督官廳)과 각신문사(新聞社)에대하야 성명서를발표할터이며 또한동교교장의 비행을 들어경찰서에 고소를 뎨긔하리라함으로 일반은동교분규의 귀추를주목중이라더라(성천)

馬賊團이 富豪襲擊
필경주인의

압록강하류오도구(鴨綠江下流五道溝)에서사는부호동민(富豪東民)정복동(鄭福東)방에는 지난이십사일밤 열시경에 총을가진마적단이십여명(二十餘名)이 침입하엿던바 그집에서는 자긔집을 방어하기위하야 고다수한 총긔를 배치하엿슴으로 집안사람들은각각바람벽으로 방어하엿는데 주인과마적단과약세시간동안이나 격전한결과 마적단은할수업시 도망하엿다는데 마적단편에는이삼인의부상자(負傷者)를내인듯하다더라(안동현)

無名會總會
구월이일오후

구월이일 오후다섯시부터 시내명월관본뎜(明月舘本店)에서 무명회(無名會)추긔총회를 개최한다는바 회비는일원이며 각사신문긔자는 다수참가를바란다더라

逃走한有夫女
혐의가는곳이잇다

경남울산군(蔚山郡)언양면(彦陽面)서부리(西部里)에 잇는최룡수(崔龍守)의처김남수(金南壽)(一九)는 금년륙월이십팔일에 돌연히간곳이업슴으로일반가족들은사방으로 수색하얏스나 종적이업슴으로 언양주재소에수색원까지뎨출하얏다는데 한가지이상한것은 김남수가 친정인두서면(斗西面)서하리(西下里)에 갓다온지사흘만에 그와가티종적을감춘것인데마츰그근처에잇는한석우(韓錫雨)란자가 역시간곳이업슴으로 혹시그자가다리고간것이나아닌가하야 경찰방면으로수색하는중이나아즉종적을 알수업다더라(언양)

電車脫線
종로에서

삼십일오전십일시오십분 경에 종로로부터 동대문(東大門)으로가는 뎨일백칠십이호 뎐차가 종로이뎡목(鍾路二丁目)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압신구선로(新舊線路)접속한곳에서탈선(脫線)이되여약사십분후에복구되엿다는데 원인은 비로인하야 한편궤도가 좀물러안진 까닭이라더라

誼妹를妾으로 前面長非行
토디횡탈로 고소를당하엿다

해주군 영동면청풍리(海州郡永東面淸風里)사는 리룡개(李龍介)(五二)는 동군월록면(同郡月錄面)전면장이 엇든구태서(具泰書)라는사람을 거러해주디방법원 검사국(海州地方法院檢事局)에 고소를뎨긔하엿다는데탐문한바에의하면 멧해전 구태서가월록면장(月錄面長)으로잇슬때에 옹진군 마산면온천리(甕津郡馬山面溫泉里)의 로긔원(魯基源)의 처리텬석(李天錫)(二○)을 의매(誼妹)로정하고 것흐로는 남매나 상인주 남의눈을 속이어 이래비밀히 정을통하야오든중 작년륙월삼월에로긔원이가출을하자 경찰당국에서 본부(本夫)가잇슴을 짐작하고 혹은 사족(使嗾)이나 아닌가하야일시 구태서를 인치취조한일이잇섯스나 아모단서를 엇지못하고 고당시는 무사방면되엿섯는데 로긔원이가 사망후재산상속(財產相續)

哀調띄인朝鮮館
同病相憐格의臺灣館
문압헤세운장승이더욱불쾌
大連博覽會를보고 特派員李相喆發信

이곳에는 팔월삼십일부터 대련시(大連市)의 주최로 대련권업박람회(大連勸業博覽會)가개최되엿스며 박람회안에는 조선관(朝鮮館)이라는

조선물산 (物產)을소개한다는 특설관(特設館)이 잇다 조선관! 물론이것이 우리의마음에 맛도록 우리의손으로만드러노은 진실한조선의 자랑거리이냐 아니냐하면 뭇는사람부터오히려 어리석다 할것이다 그러나 일홈만이라도 조선이라는글자가부텃스니 한번 아니차저볼수는업다

조선물산을 소개하려는 특설관이라하엿스니 위선 그위치부터 뎍당한곳을 차지하엿는지? 살펴보자! 박람회 제이회장정문(第二會場正門)을 드러서서 분수지(噴水池)를 끼고 도라비료상점진렬장(肥料商店陳列場)을지낸후 본관제삼호관(本舘第三號舘) 음악당(音樂堂)제일호관(第一號舘)을 거치고도 다시만주(滿洲)에잇는

각신문사 휴게소(新聞休憩所)를경유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도모지 사람대하기가 귀치안키에 홀일업시 깁히가 처잇소』하는듯이 박람회장 한뎡귀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격으로 대만관(臺灣館)과 가티 의리조케쌍을 지어 나마치조선관처럼 기에 일본사람이 몰려들어오면 조선사람이 쪼겨서 빈방으로나간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조선고유의 넷그림을모방한 오색단청은 오고가는발자취를 멈추게 함으로 뭇지안어도 조선관임을알겟스나 한번다시 살펴보면집웅위에 당연히잇서야할 개와(瓦)는 간곳업고 다썩어가는 함석쪼각을 덥허노앗기때문에벌거벗고는창도친것과갓다 가다가 접하야

종문드러 가는좌우에는 『天下大將軍』과『地下女將軍』이 라는장승 두개를억지로세우고 설명까지써부쳣스니 몰으면 모르거니와 조선의자랑거리로 알고세우지는 아니하엿스리라 건물(建物)의총면적은삼십이간(間)이요출품종류와점수는

穀類一二 林產物二〇 水產品三一 人蔘及煙草一八 細工品五九 皮革類一三 紙類一三 釀造及飲食品二四 油脂類一〇 金石陶漆器等七六 織物類三一 鑛物二四 總計三三一

이데출품한사람은잡곡(雜穀)에오륙명의 조선인이 잇슬뿐이요전부가 일본사람의 개인이아니면 단테이다 물론그러하다! 이것이 조선산업(產業)의 현상(現狀)을통변으로설명함이니이의미에잇서서 국제적상항(商港)인

대련에서 열린권업박람회의 조선관은 그의의(意義)가 또한 업지안타고 우리는뒤집어 해석하여두자! 그런데 이나마 조선총독부에서는 금년봄에 웅본(熊本)과대판(大阪)에서열렷던두박람회에 예산을 탕진하엿기때문에 이번 대련박람회에는 구리돈한푼을 지출하지못하고 대판(大阪)잇는 조선물산협회(朝鮮物產協會)라는데서일반으로부터 긔부금일만원을 거두어서그와가튼것을설치하엿다한다

◇사진은 대련박람회의 조선관전경

瓦家店同胞
수해구제금

십이원오십전을본사에 남만본선(南滿本線)와가뎜(瓦家店)부근에잇는동포들이조선 안수재동포를위하야 동정금을모아 본사로 보내엿슴으로 본사에서는즉시 조선긔근구제회로 보냇는바 동정한이의방명은다음과 갓더라

◇瓦家店＝▲宋福善 朝鮮館 各一圓五十錢▲趙繼伊 卞照伊 各五十錢
◇王家屯＝▲成琫洙 鄭在鳳 崔鍾德 各一圓▲成昌洙五十錢
◇得利寺＝▲崔聖會二圓▲崔東圭 徐定錫 申道均 各一圓
計十二圓五十錢

統營龍華寺
수해구제금

오십원을본사에 보냇다 경남 통영군(統營郡) 룡화사(龍華寺)에서는 수해 구제금으로 현금오십원을 거두어본사로 보내어 조선긔근 구제부로 보내어

日本勞働者 水害同情
팔십여원을

본사를거쳐 재민에 륙십년이래에 처음되는 대홍수의것츠른물결이 삼천리를쓸어갓다는처참한보도가 미치는곳마다 눈물이 잇는이는 한조각의동정일망정 아끼지안을수업게되여 각방면에서가진각색으로 구제금이모혀드는데 이에 또다시 멀리동경에 잇는 로동자들의 피땀으로 어든동정의한뭉치가 본사를거쳐 조선긔근구제회로넘어가게되엿는데 그것은동경시 뎐긔국지포공장(東京市電氣局芝浦工場)안에서로동하는 김복태(金福泰)한태석(韓泰錫)리완제(李完濟)리우옥(李右玉)사씨의 발긔로 그공장안에서 불과몃푼의 임금으로그날그날의생명을이어가는일본로동자로부터 한푼두푼 모흔돈이 팔십삼원 오십전이나 되엇는바그동정한이의방명은다음과갓다

◇義捐者芳名
一金八十三圓五十錢也
內譯
▲十五圓丸山庫一致會員一同▲二圓間部利彥 ▲一圓式金澤久吉 丸山恭太郎 仲倉春吉 高野弘 三根近吉 齊藤彌十 樋口伴吉 高田初太郎 ▲五十錢式西村波平 宮本許 鈴木嘉延 松田參輔 三浦源次 河合俊彥 石原次郎 木村正雄 杉山森造 坂井忠六、藤井榮吉 赤井理一 並木銘太郎 神林助太郎 村上盛定 瀨尾太一郎 小林昇 加藤廣太郎 玉田靖夫 高橋正次郎 山田千代松 角林安次 高橋甚吉 成田正太 矢島源太郎 長谷川太郎 長谷川吟治 洪藤繁三郎 野本常三郎 成田彌吉 鈴木嘉延 石井勇藏 龍田茂太郎 吉崎福藏 佐藤男 吉川忠義 岡崎三郎 佐藤金七 今井定吉 今井銀次郎 小野平吉 田中金之助 皺本信太郎 小野金市 山本福太郎 蓮治得平 奥村方治郎 成瀨淸太郎 奧園正木 推名彥次郎 女屋喜八惠 松浦三吉 日木作次 芹田喜八 高橋虎雄 須永政治 里吉國正春 邊留五郎 大谷利一郎 志河富雄 ▲三十錢式岩佐朝滿 小西禮三郎 栗田傳作 鶴田今次郎 福島靜右衛門 早川三郎 野福市 中島次郎 飯盛勇 北口朝造 村田萬太郎 今泉三郎 佐渡邊留造 指宿貞二 四十川繁太郎 上野重三郎 大倉兵助 岩田美之助 ▲二十錢式稻尾芳藏 日吉良吉 佐藤聖之進 鈴木繁吉 美地伊與次 鈴木定四郎 富山吉藏 高山馬太郎 久代豬石原保三郎 淸水粲太郎 中村淸次郎 山田藏之助 尾上吉太郎 小河原虎吉 小川信次 田邊藤松 大塚竹藏 吉田曲松 吉田重左衛門 加藤與之助 柏木義平 金子啓十郎 鈴木源藏 川口治助 渡邊與太郎 高橋孝藏 玄松芳雄 金崎金吉 島海多聰吉 山井嘉一郎 吉村永男 菊地原元藏 ▲二圓五十錢式金福泰 李宗瀚 李右玉

神戶居留同胞
水害同情金
칠십여원

일본신호(日本神戶)에 거류하는 조선사람으로 조직되여 잇는 긔독교(우리主日學校)에서는지난번고국수해리재민을위하야 뎨일회로동정금칠십삼원오십전을 본사에의탁하야 조선긔근구제회로보내엿는데 그씨명과 금액은아래와 갓더라

▲五圓朴丽彥▲參圓金英俊▲貳圓式金明五 尹現鉦 辛斗成 洪淑獻▲壹圓五拾錢式河成學 ▲壹圓式李基用 陳 閔李秉直 劉宗烈 張致洙 洪鍾宗 丁奎興 文尙周 黃琡秀 李永植 李萬善 金南得 河在文 金宰許 河尙道 張克黙 李明還 金達三、金永錦 申道均 河在斗 金周鎬 梁三道 金龍俊 池子善 朱鎣德 安應元 金順尙 朴良守 李榮來 崔奉祚 金仁祚、宋尙文 權伯文▲六十錢朴永郞▲七十錢金亨默▲五十錢式 朴炳奎 趙三俊 朴用澤 閔萬植 李仁植 尹東國 金命植 金基友 金斗福 文東一 孫萬俊 趙秉祜 崔宗洙 鄭章燮 金萬乙 金占守 裴明善 金贊丘 金斗龍 鄭允浩、鄭中浩 金炯彥 姜德寬 金潤泰 呂成七 朴成坤 宋相權 孫士文 梁在律 鄭龍仁 金玉吉 李相祚 姜斷德 陳仁國 張世根 南斗元 李德用 李鳳稙 鄭奉德 李右萬 丁龍伊 姜貫祚 金上璽九 吳永煥 鄭 錫 丁鳳倫 福 金炳浩 金明善 禹水龍 李 ▲參拾錢式 余命祚 朴好象 金五用 河在用 張武烈 張渭道 ▲二十五錢 朴楠伊 ▲貳拾錢式 金公德 鄭守福 鄭昌賢 ▲合計七十三圓五十錢也

水難義金
朝鮮救饑會에온것

定州水害救濟會에서募集하야보낸것
方敬鎬 朴舜日各五圓 黃潤 安秉德 崔聖得 方應謨 劉永錫 崔炳水 金夢駿 池成洙 朴載璜 金載瓚 吳恒龍 崔 趙普錫 洪迺錫 金夢濟 崔 泰浩 盧德昇 卓漢壽 鄭奎 來 崔信浩 金萬鎰 崔泳燮 金濟河各貳圓 田性錫 金熙鳳 崔戰敏 洪貞涉 崔載禧 李炳奎 張膺煥 元鳳軒 崔 聖模 辛賢汝 田洛淵 關西印刷所 崔亨植 金起洙 秉治 桂鳳燮 朴常五 朴寬俊 崔箕疇 金允甫 金誠堅 朴寬涉 金亨玉 金顯濟 崔泰駿 崔昌文 許璉 徐廷根 方逸源 卓景三 金時觀 李鳳時 李京俊 李龍基 任總俊 白寅行 白就卿 張膺三 金俊煥 朴瑞根 任錫鏞 金龍成 崔承河 定州木工所 白周燮 崔元泰 金仁行 方興奭 卓炳周 金熙燉 許戢 枰 安鍾麟 金公壽谷 一圓 朴元根五十錢 金信川衣服八件
計金一百十一圓五十錢也
費用一圓二十錢也(小包費爲替料)
差引 一百十圓三十錢也
一金十五圓五十錢也京城驛各運送店朝鮮人店員一同
累計 一萬四千二百十四圓七十四錢五厘也

종명자

▲권조선에허러져잇는우승을파는매춘부는칠천북백여명중에일본녀자가사천팔백구십칠인이라한다▲조선에와잇는일본인통계사십일만인에오천명의매춘부를가진것을일천칠백만의 조선인은 겨우 삼천가량의우승파는녀자들을가젓다▲이것이 선진국과후진국의표현인지도모르겟다 그러나일본인의 매춘부는식민정책의 선발대인랑자군이라한다▲녀자를부리로며유하는것도문명국의특색인지▲그러나모일본인은말하기를『그것은』사실로자랑거리는못되는것이다』라고▲해도략 아잇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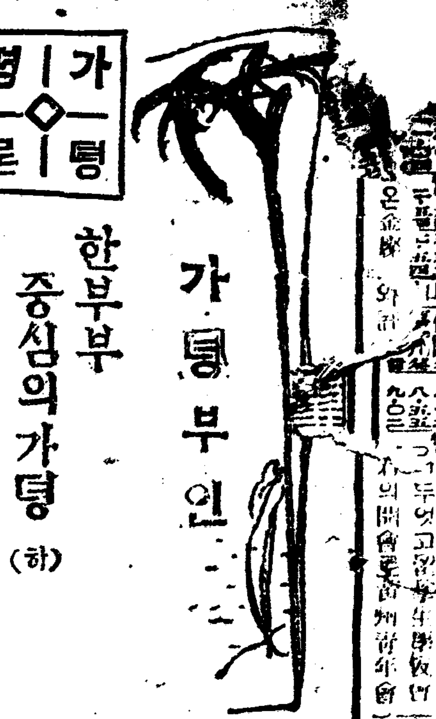
吳鍾鉉大夫人長興高氏以宿患今月二十八日下午十二時(陰七月十日)別世於京城府崇二洞二百一番地本第謹玆 計告
發靷 八月三十一日上午七時(陰七月十四日)
永訣 八月三十一日上午八時式於仁寺洞中央禮拜堂
葬地 高陽郡崇仁面彌阿里
乙丑八月二十九日
嗣子 吳鍾鉉
子 吳相鉉
孫 吳暢鉉
婿 李喜瑢
奭

바이올린科、風琴科 音樂學生增募 京城西大門町一 硏樂會

會我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太平通貳丁目五八番地 電話長本局二一六八番 振替口座京城八九七番
京畿道各郡 特約募集 (會하시압 特約을願하시는분은照會하시압)
瓦斯發動機 五馬力以上各種 (實願하시는분은)
馬力을指定하야照會하시압
說明書進呈 (新聞名을記入하야請求하시압)
於各博覽會 名譽大賞牌受領

世界精米機界覇王
動力界의光明 얌마ー石油發動機
米國製最新式 엥게루바루구精米機
農家의福音!!

◇八月二十七日부터
◇米國유니버살作品 森林大活劇 巨腕의人 全二卷
◇米國유니버살超特作 『사이크롭스미쓰의再來』에되오로氏大飛躍
◇米國유니버ー살作品 猛獸活劇 愛馬 全二卷
連續 迅雷列車 十五編三十卷 第三回第五編 都會의危險 四卷 第六編 暗號 電上映
◇米國유니버살特作品 大悲曲 愛 六時五十分 全五卷
◇米國유니버살社特作品 紅戀愛話 黑幕의蔭 全五卷
◇大豫告◇
카ㅂ스 全十二編 二十四卷 十八日間世界一週
每週十二卷式大會로上場합니다
▲▲高麗映畫製作所處女作品 朝鮮初有에現代的悲哀曲 大悲哀曲 雙玉淚 前後編 全十數卷
松竹特約社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가뎡부인

가뎡평론 — 한부부중심의가뎡(하)

三村人

◇먼저리해를위하야『한부부중심의가뎡』을 만들자함은작일에 말슴한바어니와 다시한번종래의 다수가족제와 한부부중심의가족제의 리해를 비교하야 불필요가잇슴줄로 생각합니다

첫재 여러가족이한데살면제집안 일이라도 서로미루고정성되게하지안는폐단이생기며자연히게을러집니다 따라서한사람이나두사람이벌어서 열식구나 스무식구를 먹이게되나니 이는한가뎡경제로 보아서도 유익지못한일이오 한나라 경제로보아도 극히 해롭습니다

둘재 여러사람이살면자연사람이 귀한줄을 모르는동시에 가족과가족사이 차별과 학대가생깁니다 그리하야 종래우리가뎡에는 가장이나 주부의 밥상부터달럿스니 그다음이야 말인들하여무엇하겟습닛가

셋재 여러사람이살면누가병이나더라도 죽을병이 아닌이상 약 한첩을자유로쓸수도 업게됩니다 이것은여러말로 설명하는것보다 여러분의경험에비추러보십시오

넷재 따라서아이들의교육도 마음대로 할수가업시되고 가뎡에서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정실다든 여러사람이 잇슴으로 지도상통일을엇기가어렵습니다

다섯재 이와가티 물질로나정신으로나 정돈을 어들수업게됨으로 자연 가족사이의사랑이 오즉 형식에그치게되며 사람을실혀하는 생각까지 이러나게하며 혹은극단의 비극까지 이러나게됩니다

◇여러분필자는이이상으로더조건을 열거하라하지 안습니다 무엇보다도급히 우리의가뎡을『한부부중심』으로고치자는말이올시다누구나이러케고친다하면 행복되리되는 뎜은속히업다할지라도해되는뎜은절대로업스리라고생각합니다

──(끗)──

리익이만흔 서리병아리 길러내는지금 [三]

◇다소의준비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병아리깨히는방법을말하랴합니다 종래부터 두어마리라도 길느든집에는 씨암탉이 잇스닛가 문뎨가업겟지만 아조처음 시작하랴는이는 다음과 가튼준비가 잇서야합니다

큰닭한자웅 이원내지삼원 닭의장(석유상자등)약오십전등구미(집한곳이면넉넉함) 오원내지십원

이상과가티 최고메산으로 삼원오십전을드려서 준비가 다된후에는 암닭이 안기를기다려서 조흔알을구하야 한배에 열한개내지열다섯개(수가만흐면곤난)의알을주어깨이게할것이다

◇씨암닭의선택

병아리를 깨이는데는 씨암닭의선택이 가장필요한것이다 만약암닭이낫부면 이계획전톄를 실패할것이니 암닭을 잘선택함은성공의데일보이다 그러면 엇더한닭이 씨암닭에가장 뎍당할가쉽게말하면 닭의성질이 매우영악하여야하며 한번이라도알을까본 경험이 잇는닭이면더욱조타 그러나양종으로는『레혼』이라는가『미놀가』가튼 알만낫는종자는 안지를잘못함으로 소용이업고 또일본의명고옥(名古屋)종가튼것은매우뎍당하나 구하기가 곤난할것인즉 위선보통 조선닭중에서너무 크지도안코 적지도안흔것으로건강한 이던게만 구하면넉넉하다

◇씨암닭과오계

이밧게조선재래종으로씨암닭에가장뎍당한종류는오계(烏鷄)라하는닭이니이닭은살이나뼈까지컴부검은종자이다 그러나털빛은흰것이가장조흐며이종류는약용에만히쓰임으로다소갑이비싸기는하나병아리까는데는아마세계에데일선수일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경험이업는이라 할지라도오계만구할수가잇다하면여간특별한고장이 잇기전에는 성공을예긔할수잇스니 오계의 성질은알을품고잇슬때에고양이가튼것이오면(다른닭은다라나도)것으로더부려죽기를한하고싸호기까지하는터임으로씨암닭으로는가장리상뎍이라할수잇다

의복에 떠러진 장물새는법 — 아모니아수 와붕사로

어린아이들은 남녀간 밥먹을때에는 압치마를 반드시둘러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숄갈질을잘못하야 국물을 흘리고 장을 떠러트리는 터이즉 압치마를둘러주지아니하면 의복을바리게 되는것이올시다 그런데 만약의복에나압치마에 장을엎질는다 든지 혹은 부인들이 반비간이나

◇부억 에서일을 하다가 장을의복에업질는게되면그장이용이히 싸지지아니 합니다조금무덧슬때 비누로 얼는빨면능히빼일수 잇스나 얼마큼시간이경과한후이면매우빼이기가어렵다고할수잇슴니다 그럼으로누구던지 장이의복에 뭇거든지체하지말고 곳물에 흔드러빨것이올시다 그러고 장이의복에만히배엿거든먼저

◇물에혼 드러노코다시암모니아를 물에타서 빨던지혹은붕사(硼砂)를 물에풀어 가지고빨면 정하게 싸집니다장이의복에 업질러진후 즉시빨수업거든그얼룩진곳에 소금을 뿌려두엇다가 빨어야 됩니다또한고기국물이 의복에업질러 첫거든회발유를 솜에나 해면에무처가지고문질러서 지방분을 먼저쌔이고다음에

◇암모니아 아를미지근한물에타서 놀려빨면 쌔집니다의복이만히 더러윗거나 고기국물이업질러진지 오래된 경우에는회발유대신에『벤진』기름이나『솔벤』기를발러도좃슴니다

가뎡실험과학

모긔무데ㅣ、쐐거질하는데、빈대구제하는데…엇더케? 경험으로어든신긔한법

여러가뎡에서 여러부인들이 각각자긔의 생활상필요한것을 스사로 경험하야 어든비 지식이만히 잇슬줄압니다 사람은돈으로만살것이아니올시다 또한 돈가지고도 변변히게 만들수업는것도 적지안타고하겟습니다 못슬물건을 리용하야 천금을주고도사지못할 조흔물건을 만들수도잇는것이요 어렵지안은 리치로자긔의몸에 생기는고장을 몰리칠수도 잇습니다 긔자는이제여러가지 방면으로 경편하고실생활에 유익한 모든것을스사로시험한결과 완전하다고 생각한것몃가지를 독자여러분의 말슴하여드리고저합니다

빈대구제하는법

◇……식골보다도 서울은빈대가만습니다 어느한집 쌔여노치아니하고 넓으나 넓은서울장안에 거위 집집마다잇는듯합니다 빈대가업는집은 흉가라고도로혀 쓰린다는말까지도 잇습니다 그러나달고단 밤잠을사정업시쌔혀노흐니『흉가는 되건말건빈대만업서지고』── 이러한날을하지안을수업습니다, 요사히거리에서파는 빈대약으로는도뎌히 수만흔빈대의생명을 여지업시 수새할수가 업슬뿐아니라빈대집을하고 약을뿌리면 그날하로는 빈대가나오지를 못하나 그다음날부터는또 마[illegible]니다 빈대는강냥쌀사귀를 또떠서 방에노하두면 그리로모다나려와 긔여달려붓습니다 그것을 떠야예를을떠서노햇다가 집어너코집어너코하면얼마큼빈대를 잡기가쉽습니다 또한정솔닙을 산에서새로쓰더다가 방안에징미트트도 쏙도라가며 펴노하두거나 빈대가나올만한곳에 막어두면 일주일가량되야 스사로빈대가업서집니다 매우 이상한법이오니한번실험하야보시는것도조흔줄암니다 그리고 빈대가만흔집을새로사서 수리하고 드시려는분은 양재(洋材)를 물에타서벽에뿌려두엇다가 말으거든 다시양재물에풀을개여초도배를하고그우에는조선조희로다시바르면빈대가다죽고나오지를못합니다

모긔물린데에는

◇……여러분요사히구즌모긔에게 살을물리면 엇더한처방을하십닛가? 약품으로는암모니아수(水)를 바르면곳나흡니다 그러나 모긔혹은 다른독충(毒虫)에게물렷슬때에 그보다더신효하고도 동권한푼 드리지안는조흔약이 잇슴니다 그것은녀름한철아츰마다 피이는(일본인이조안화(朝顔花)라 불으는것)메쏫입사귀를따서 소금에 뭉개여그풀물을 바르면 십분도못되여부은것이 갈어안고 압흔증세가업서집니다

쐐거질멈추는법

◇…… 어른이나 아이들이나무심중에 쐐거질이나오기 시작하야오래동안 멈추어지지 안을째가잇습니다 우리조선서는 쐐거질이나오면 혹은물을 먹이고혹은『무엇을도적하야먹엇나』고성을나게 하여주고 혹은소리를질러서 깜작놀내게하고 혹은얼핑을먹으라고 합니다 이우에말한몃가지방법도 비교적 쐐거질을업는그치게 한다고 할수잇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두어자즘놉흔곳에서 뛰여나리면 곳멈추어집니다 만약단번에 그치지안는다하지라도 세번쯤더 지나기전에 멈추어바리는것인 즉무려이나 마루에서나 장독대에서나하여간 놉흔곳에서 두어번뛰여나려보도록 하십시오

긔독교녀자로만 뎡구대회를 십월십일경성서

시내뎡동(貞洞)례배당안에잇는엡웟졍년회주최와 경성녀자긔독교졍년회(京城女子基督教靑年會)와 긔독신보사(基督申報社)후원으로 뎨일회전조선긔독교녀자뎡구대회(第一回全朝鮮基督教女子庭球大會)를 오는십월십일부터(◎) [illegible]열터이라함 그신청긔일은[illegible] 만반 참가금은 엄다는데 긔독교녀자로서만이와가티전국뎍으로대로녀자뎡구대회를연다함은빈약한녀자운동계에서는 틀림업시 장려를하고저하야 그희망을 반운동계를위하야한이채를하게더라

二千圓小切手 위조한범인

군산서빈뎡(群山西濱町)안건물옹(安田一補)은 지난 이십사일에군산욱뎡(群山旭町)홍천정자랑(弘田政次郎)의 소절수를위조하야 림모의 명의로써 차부를식혀 군산곡물조합에서 현금이여원을 차진것이 발각되야군산서에검거되엿는데 겨우 이십원원을 소비하엿슴으로 남어지는홍천에게 돌려보내고 목하군산서에서취됴중이라더라(군산)

藝苑

金剛禮讚(三)

白雲香徒

◇眞珠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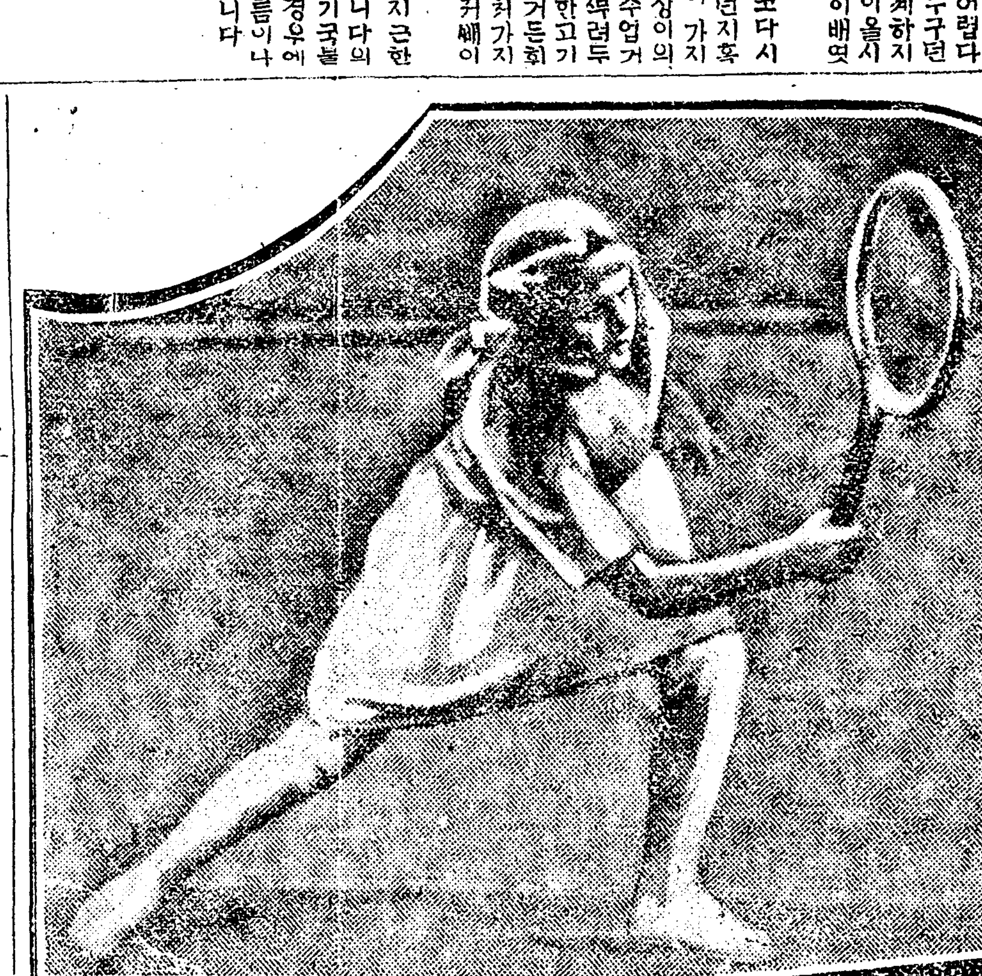
◇川은돌을어더더욱生氣를띄고돌은물을因하야더욱精彩를나타나매 萬瀑洞이라는데는마치날기니히는종달새가한번은한번보담더活氣를뵈워오는것처럼싱싱한맛의걸음걸음느는것만으로도限업는爽快를꽤닷게합니다。그런데이시원한맛은晴雪瀑에서八九分이되다가 다시한층眞珠潭에를올다서서는十二分의大漲溢을보이게됨니다。

◇헌걸찬陡壁이左右에나리질리고 민틋한石床이보기조케그사이를가로질렷는데 우굿하게흰눈갓흔人돌이조곰조곰텅이자다가븐득크게決斷한것처럼直角斷面이생기고 그正中으로서幅으로나長으로나 시방까지보지못하든키단瀑布가 긔운차게펑펑펑쏘처나려오면 색다귀에부딋고 모소리에스치는물빨이그대로萬億無量大珠小珠를아조헙히四方으로헤뎌립니다。철고질생기고새간만흔少年男子가아모켜[illegible]리서는것업시아조푼푼하고너그렵고수월수럽게行耐하는것가튼[illegible]니다。무엇이라는것보담모다편한마듸『산아희답다』는말로形容할직한瀑布는金剛山에서여긔를처들겟습니다。

◇생기고생겨도다한업는구슬은떠러지고떠러저그칠술을모르는데 한줌씀떠러지면두줌세줌식품아시하는瀑面의솟는구슬을合하면 天下의珠玉은모도여긔와모인듯합니다。絲琉璃盤에눈을쪽이는綠珠水晶珠、펑펑퍼붓고 죽죽쏘언뇨 홰홰뿌리고착착쏘치고, 솟고뛰고춤추고솜바꼭지하는美觀도決코欽舌에어쉬못할景입니다。이만흔구슬이임자업시허트러지건마는 古今來에한알갱이집어간이잇단말을드를수업스니 사람들이여긔서만은廉박것을야툿하다하겟습니다。

◇바로엽헤웃둑하신法起峰、瀑潭에처奠坐하신것이미상불『涂香城中에서爲衆生、隨意說法令衆生、照種善根』하심을勸한것갓지안홈도아님니다。그압헤바로꽁손스럽게고개를숙인듯안石巖이라날커른니 不惜하[illegible]起善權을쏘와서七月十[illegible]嗜哀求하야 그般若法文을두드신용이 또한천연하다고도하겟습니다。우리가튼凡夫도여긔와서는어린듯미친듯彭賜人못하지 안케 如我의見을닐허버리고오직『이 大山水!』의感嘆만心髓에沈浸한는미상불法起菩薩의威神이다각기證認하는一端임니다

◇側面의岩上에『水簾』이라고색인것을보고 바로當面하야瀑騰大吼하는듯한獅子岩을처다보면서올라가면『옷소』라는동그런潭이잇고그것石上에朱尤庵의것이라는『淸溪白石剛同趣 霽月光風更別傳 物外余今成跌宕人間何處不啾喧 崇禎癸亥秋』의키단題刻이잇습니다。朴燕巖의記를嫌하건니水簾二字는尤翁의書라합니다。거긔서좀다가면고개든남생이가서로對한것가튼兩大石뒤에잇는것이龜潭 한번고여서쌧죽한『큰드란』가되엇다가斜崖一段을똑떠려가다시昔전『한홍이』인곳일운것이船潭、 다形象으로일흠을어덧습니다。



◇…사진설명…◇

영국에서 얼골이어엽부고 테니스잘치기로 일홈이놉흔 [illegible]나솔 양인대 양은 금년에겨우열세살되엿스며 최근잉글랜드대스코트랜드정구시합에잉글랜드대표선수의 [illegible]

農工結合論(二)

金鳳集

現下經濟大局上으로본우리의救急策

人文이未開하고交通이踈遠되지못한往古에잇서서는甲社會는甲社會、乙民族은乙民族으로彼此關係업시儼然히別天地로耕田而食과鑿井而飲으로 民族이나社會가其存立을維持하는데別般努力과別般奮鬪가업서도能히存立을維持할수잇스나 오날과가티人文이 크게열리고 交通이頻繁하여잇서는 努力이업는民族이나 努力이업는社會는其存立을不許하게된것은 近世歷史가우리에게明明白白히가르처는바임니다 近世歷史는오즉이明白한事實의記錄뿐임니다

古代의戰爭은一部野心家의功名慾이나虛榮慾으로된것이만하엿스나近世의戰爭은모다經濟문뎨에基因하는 所謂經濟戰化가되엿슴니다 古代人口가稀薄하고交通이發達되지못한그때에는各民族과各社會가다耕田而食과鑿井而飲으로아모不足과缺乏이업슴으로따러서 서로別로히競爭이업섯지마는 社會가發展되고交通이열님으로부터는社會萬般事가다經濟를中心으로삼어活動하며 努力하며競爭하게되엿슴니다

人類가밥을먹지안코生活하며衣服을입지안코生活하며住居를要치안코 生活하는날이오면모르지마는人類生活에밥이必要하고 衣服이必要하며住居가必要한때까지는人類生活에活動이必要하고奮鬪努力이업지못할것입니다

이經濟的活動과 努力의形式은여러가지가잇슴니다 엇던때에는弓과劒과毒瓦斯가튼것을使用하야싸흠하도잇고 엇던때는이와反對로 조흔飲食과뜻한衣服과便利한器具등만히提供하야남의經濟力을쌔앗는所謂平和戰이잇겟슴니다

現代所謂文明國들이이平和戰에對하야엇던케苦心을하는지即엇더케하면廉價良品을製造하야남보다優越하게販路를넓힐가하야努力經營을하는지는 近世國家의政策의나施設이다이平和戰에對한準備ㅣ임니다 所謂產業政策이니經濟政策이니貿易政策이니關稅政策이니하는것이모다이平和戰에對한準備와施設임니다 너욱이近世各國의關稅政策에對한施設과苦心의歷史는남의製造品의貨物을使用消費하는것이얼마나危險한것을明示하는바임니다

最近五年間에亘하야온世界를震撼케하던世界大戰은戰死者總數約一千萬人 總戰費와損害總額이約六千七百億圓인往古未曾有의大戰爭으로 그表面原因은여러가지遠因近因이잇스나其實은이平和裡의經濟的侵略化한것임니다 英獨兩國의經濟的世界政策의衝突이即其큰原因임니다 獨逸의製品이全世界는勿論英本國市場에도크게發展되여獨逸의工業과通商이絕大한進步를하야今後獨逸이世界經濟의逐鹿場에서何處까지步를 할는지 눈을크게뜨고英國이 警戒하기始作한것이即其큰原因임니다

이와가티이번戰爭의發端이經濟問題로부터始作되고終結即講和問題의中心點이亦是經濟問題라[illegible]이던것은 우리의記憶이아직새로운바임니다 그리하야戰爭이 終結되자마자列強은 다시平和戰을 시작하얏슴니다 英國政府에서는벌서各種産業에 對한政策을 새로이[illegible] 施設한은勿論이고全國工業經營者가 五六年前에 會集하야同盟을만들어世界各重要한地方에사람을派遣하야그곳의人情風土와各般事情을잘調査하야엇던物品이그곳의國民의第一嗜好하는것이며또엇던物品이그곳國民의第一需要되는것인가를調査報告케하야甲地方에는甲地方에適當한物品을製造供給하고乙地方에는乙地方에適當한物品을製造供給케하는調査와計劃이完全히되엿슴니다

英國의戰後經濟政策으로第一먼저눈에쓰이는것은數年前에議會를通過한所謂商工促進策입니다 이商工促進策이란것은外國에輸出하는物品에對하야는政府에서반흔資金을貸付하며또外國에[illegible]造하는工場에는만흔資金을貸付하는法案임니다 이와갓치政府와民間을勿論하고經濟策에對하야汲汲하는中임니다 東京서엇던經驗者에게이러한이약이를드른일이 잇슴니다 一時는엇던英國商人이自己商店에새로히發明된조흔製絲機械가새로히만히到着하얏스니試驗的으로使用하여보지안켓느냐하면서代金은現金이아니라도좃코언제던지조흐니한번試驗的으로使用하여보아달나고懇請하드라는말을들엇슴니다 英國은이와가티全世界를自己네의製品을使用하는消費者를만들고야말計劃을입니다

數年前英國서엇던製絲業者가獨逸製機械가廉價임으로그것을使用한일이잇섯는데그것이大物議를일으켜서同業者間에서除名이니懲戒니하는여러가지問題가생기여겨우나종無事히解減되엿슴니다

近世獨逸史를읽는者는누구나다感歎하는바이지마는近世獨逸은[illegible]하야萬事에科學的으로努力하는것은獨逸國民의一致共通한特質임니다 獨逸에는이러한俗諺이잇슴니다『이세상第一大惡은말만한것은教育을바든愚物이라』 이것은死學問、死學者를痛罵한말임니다

產業中에도 더욱이工業에對하야獨逸人이엇더케나苦心努力의經營을하는지는이러한일을보아도알것임니다 大戰爭『카이젤』이帝位에잇슬때에世界에업는特例로『카이젤』의勅令으로定한일이잇슴니다 그것은即다른것이아니라高等工業學校卒業者에게工學博士의學位를주는規定임니다 所謂博士의稱號는大學의權威로주는것인데이와가티高等工業卒業者에게博士稱號를주는것은世界에처음잇는일임니다 이것은工業을發達케하는데는무엇보다도技術者가必要함으로技術者를欽待하는方法으로制定한것임니다

이와가티苦心으로研究하며努力하며獎勵하며促進하기때문에科學으로온世界의中心이되고더욱이化學工業과醫科學術은到底히他國民의企及치못할만큼進步와發達이잇섯슴니다 新發明新發見으로『노벨』賞을바든사람數가全世界各國人中獨逸이第一多大數를占領한것을보아도 알것임니다 獨逸國民性은決코그리才能이잇고敏捷한國民이아니요도리혀遲鈍한國民이지마는努力不休하는國民即組織的으로努力하기를마지안는國民임니다 그러키때문에近世獨逸의發達은歷史上稀有의例임니다 過去五六年동안온世界를敵으로삼아經濟上政治上어느方面으로던지大打擊을바더各國의財政家와經濟家가悉皆相議하야獨逸人이다시는世界에覇頭치못하리라고推定한면서도億萬馬克의賠償을履行하면서도着着復興의途에就하야발서獨逸製品이世界市場에서英米品을壓하게되여英國은獨逸人의復興이不遂함을근심하고佛國은눈살을씨푸려獨逸의復興이날로갓가워옴을두려워하게되엿슴니다

英獨뿐만아니라 米國이亦그러코佛國이亦그럿코 日本이亦그러합니다 所謂國產獎勵니產業立國이니하야어느社會나어느民族이던지이經濟策에對하야汲汲營營하는中임니다

이와가티近世各國民이나各民族은戰時나平時를勿論하고寸時라도休息치안코苦心을더하고努力에努力을더하는中에잇서서 우리民族은儒教의思潮의中毒을바덧던지무슨中毒을바덧던지近世以來로 空談空論과外國古典의暗誦뿐으로단꿈에잠기어世界가어떠케變遷되는지社會가엇더케進化하는지經濟가무엇이며產業이무엇인지를조금도아지못하고 [illegible]다 이러케[illegible]百年동안을이모양으로經過하야왓슴니다

豆滿江의노래

豆滿江畔에서 盧子泳

白頭山의울고흘린
눈물한줄기!
흐르고 흘러나려
豆滿江되엿스리!

豆滿江의흐르는
急한물줄기!
白頭山의뎨목을모라나리든
안개속에 한달우는넘은江岸
엔,
뎨목탄樵夫의 설은노래가
잠든새의조름까지 깨처바린
다

저편은支那짜 이편은배달짜
쫏기는白衣人의 압흔가슴이
豆滿江건널때면 눈물이되야
조두두 주두두 물줄기가티
그江우에떠러저 거품이된다
고

오! 白衣人의눈물엉킨 나의
豆滿江
아직도네가슴에 그눈물잇는
가?
나도역시白衣人의 쫏기는한
사람!
同胞들이울고간 豆滿江에서
나인들아니울고 엇지머치랴
!

豆滿江의물결을손으로움키며
나도역시설은눈물 휘뿌리노
라
豆滿江아 네가만일밤이잇거
든
同胞들의눈물이흘러간곳에
이눈물도한가지 실어다다오
?

(一九二五、八、一九日白頭山을둘러 豆滿江 건너는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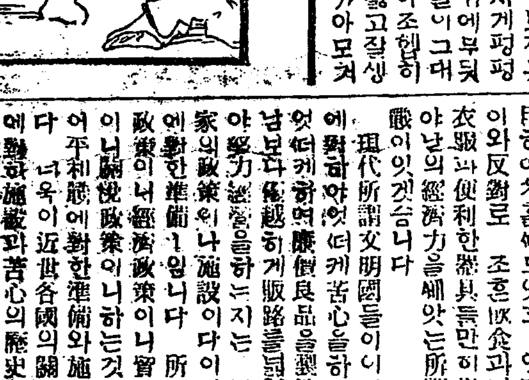
멍텅구리 자작자급

(74) 갈광질광

(一) 실망중에 바람을맛나
(二) 꼭되엿다는말에 긔운을차려
(三) 엇지할줄을몰다서 허둥니다가
(四) 가보자는말에 갈광질광

어린이란

해바라기



해바라기 꼿은 언제든지 해만처다 보는꼿인데 꼿이크고 탐스러워서 사람 들의귀염을 밧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만작고 또처다니면서 처다보는새닭이 잇지요 녯날에해하고 해바라기하고숨박꼭질을 하엿드랍니다 그래서 해는숨고 해바라기는 해를차저내여야만 되겟는데아츰에 해가 동편하늘에 얼골을 내여노흐면 해바라기는『해가어듸가서 숨으랴나』하고 윈종일 해만처다본답니다 그리다가해가 서편 산넘어로몸을 살짝감추면 해바라기는『해가저산넘어숨엇다 해가 저산넘어 숨엇다』하면서밤새도록서편쪽만바라보고 잇다가 아츰에해가 쌀쌀 우스면서동편언덕에서 고개를내여노흐면 그제야해바라기는 깜짝 놀라『이번에는 꼭찻는다 이번에는 꼭찻는다』하면서 또 해만 처다봅니다 그러다가 해가다시 서편 산넘어로숨으면 또『해가저산넘어 숨엇다』 해가저산넘어 숨엇다 하기만 하고 밤새도록서편만 보다가 언제든지 해가 동편에서나오는것을 못차저낸답니다

◇新刊紹介◇

◇週刊朝鮮之光(十五號) 盧泉紛爭事件에對한一批判、社會科學에在한唯物論과唯心論、演劇의社會的革命、政治와藝術의交叉點、그린자의말文士生活貧窮記等多載、發行所京城西大門町二、八八朝鮮之光社、定價十錢(振替京城一三、二七九番)

小說 靑衣夜叉(청의야차) [1]

金浪雲 譯 廬心汕 畵

一

여름밤이란 곤한것이 올시다그러나나는 여름밤이 곤한줄도몰으고 또여름밤이 환하게밝는줄도 몰으고 이것을한숨에 다윗습니다 이 소설이문학상으로 얼마나한 가치가잇는지 그것은 나의알바가 아닙니다 또는 이에말할필요도업습니다 나는다만 독자여러분도또한 이소설을 오륙회까지만보시면 반드시 웃지안보시고는 못견데실것이며 또는히수를거듭할수록흥미가나서못견데시리라는것만미리말슴하여둡니다──역자

◇ ◇ ◇

『히론』이라하는것은、나의 본명이아닙니다 그러면무슨 까닭으로내가 이이름으로써 세상에행세를 하게되는가?──

그것은나자신이 세상 사람들의호긔심과 슬데업는 억측을피하고저한는것이 첫재의 리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는자연히구라파에서 가장유력한 엇던황실의존엄을 손상하게 됩니다그것은 엇절수업는 일이지만나의본명이 히사실에관련되는 것을피하고 저하는 것이둘재리유입니다

아조최근에와서 여러가지이상한이야기가 생겨낫다 처음에나는 이소문을 일소해버리고 말앗다 그러는 동안에이소문은 엄청나게도 퍼지게되엿다그것은 민활한신문긔자들이 두는큰편을것이나 생긴듯이 긔를쓰고이이야기를주서다가그것을다시 반소설비슷한『로맨쓰』로꿈여냇슬뿐 아니라 이로인하야이세상에서나에게가장친밀한한사람에게까지 루를 씨치게한것이엇다

엇잿거나 나의이야기라 하는것보다 차라리내가 밝각한사건을 차례로써보겟습니다

한머、독자제군에게 사정의괴묘한변동을 분명히 알게하기위하야 나는지금으로부터 한반년[illegible]시간에 비하면 그다지오래인것이아니나 나에게는그것이 변화가만흔일세긔동안이나 되는듯이 생각된다

나는아즉졂어서 저우스를 다첫솔 되엿이엇다 그때에나는부친의 유산으로하야 매년이천원에갓가운 수입이잇섯기 때문에상당한생활을 하고잇섯다 그럼으로나는 실업에관계할 필요도업시 그날그날을 하는것업시보내엇다 말하자면나는 날이도라오는것과 아츰이 도라오는것을마지하기에 실증이 날디경이엇다 나는그때에「옥쓰포드」대학에를다니고잇섯다、하지만 상당히게으름도피우고또점잔치못란폭한행동도 종종 잇섯슴으로잘졸업이될는지엇덜는지걱정이엇다、하나결국은 의학사리는학위를엇게되야그후로얼마안가서세상에서보통、하는것과가티외국에놀게되엿다、하지만 그것도이년이되기전에 실증이나서 「론돈」으로 도라왓다 도라와서 강변(江邊)거리에잇는「에섹쓰」다하는곳에 연긔로껌아케쎈두간밧(거처하는방과침실)을어더가지고 주소를뎡하엿다

조곰만나아가면 번잡하고조흔길이엇스나 내가잇는 곤처는몸시도 써럿스며 죽은듯고요하엿다 아조침침한곳이엇다 그집아래층과 이층은 몃사람의변호사들이 사무소로 처지하엿스며그사무소의 문들은 모다떠리지고퇴색한 록색다사로 가리어잇섯다、한데、내가잇는방은삼층이엇다

나는 그방과가티 아마반세긔나된듯한 가구(家具)도 어떳다그방과 그가구는 충충하고 예전것이엇스나 다만한가지 나의마음을 쓰는것이잇섯다 그것은다른것이아니라 그엽헤「예일」이라하는 대학시대의 나의동창생이 사는것이엇다 그는합부로방탕한후에 한문사가되여서 어느잡지긔자로 잇섯다

좀긔묘한듯도 하지마는 내가따뜻한 남국(南國)을버리고 와서 충충하고더러운 이런곳에주소를정한것은 세상에서 다만나하나뿐인 이나의친구의 엽헤서지내고저하는까닭이엇다

이십년이나 나의집에 잇는어늠은『써부인』을제하면 나는어린애와가티 의지할곳이업는고적한나하나뿐이엇다 스를다섯살이되자 나는아모것도 흥미가업시되야 항상어둠속에 몸을당그게되엿다 인생에대한모든욕망은 죄다나를떠난듯하엿다 이세상의자미라하는것도 벌서나에게는 상관이업섯다 그리하야원긔가가득한 청춘임에 불구하고 나의정신과 나의육테는 사실로무덤을바라보고잇섯다

◇……◇
단성사독자우대권은란외에
◇……◇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三十日 正午 七八、四 比較 廿九日 最高 八八、七
◇日出前六時〇二 晝間一三時〇四
◇日入後七時〇五 夜間一〇時五六

安州署에서 强姦犯人脫走
종적이아즉까지오리무중

지난이십칠일밤여덟시경에안주경찰서(安州警察署)에가치여잇든 강간범(强姦犯)이 경찰서를뛰여나와 다라낫슴으로 안주서에서는 그길로 곳비상소집을하야 대활동을개시하고곳곳이 차자보앗스나 종적을 알지못하고 그이튼날은 안주군동면(安州郡東面) 방면으로다라난형적이잇다하야 각주재소와 협동하여가지고으슥한산골을하나도빼지안코 수색을하엿스나 범인의그림자도차자 보지못하고 아직까지계속하야 활동중이라는데 그리고매우 놀내엿다하며 탈주하든 당시에 말을드르면 그자는평원군(平原郡)에잇는김익관(金益官)(唄)이란자인데 전과가여러번잇는자이라하며 류치장안에서 공연히 떠들어대이며압흔곳도 업는것을 죽어가는형용을하며 야단을치는고로 류치장에서 꺼내여 다른방에두엇더니 그와가티 다라낫다하며 곳그뒤로고천(古川)이란 순사가 따라스나 그자는 죽기를한하고다라남으로 압흐로 약이삼간바게 떠러지지안허서 잡을뜻 잡을뜻하다가마츰내일허버리엿다더라(안주)

金化巡查 酗酒拔劍
일반이비난

강원도김성경찰서관내김화군원남면개야리주재소(江原道金城警察署管內金化郡遠南面開野里駐在所)에근무하는일본인순사상평전금장(上平田金藏)은지난칠월초순경에 동군 원남면진현리(遠南面榛峴里)술장소동리주점에서 술에취하야동민최동학(崔東學)를아모관계업시란타하다가나중에발검(拔劍)까지하얏는데 당디면민은 비난이비등하다더라(금화)

本妻를短刀刺傷
친뎡가잇는것을쏫차가서

황해도 장연군 장연면읍전리구십구번디로광엽(黃海道長淵郡長淵面邑前里九十九番地魯光燁)(三八)은자긔안해김소데(金小娣)(三一)가동리오 십륙번디 자긔친뎡에가잇는것을지난이십팔일오전십시경에차자가서 언쟁끗헤 적은칼로두번이나 뒤스등을 찔넛다는데 한곳은경상하엿스나 한곳은중상하야 필경폐부(肺腑)를범하엿슬뜻하다하며동김씨는그자리에거꾸러지자로광엽은즉시도망하야 종적을 감추엇슴으로 아즉경찰서에서도테포치못하엿다는데그내용을알아본즉동범인은본시도박범의전과자로서금춘에도 이십일간구류의 형을당하엿스며그뿐아니라 부랑자로 남의계집에게엇던관계를두엇슴으로내외사이에는비상한싸홈이계속하야 잇는것은 일반이다아는터이오또한십여일전에도그런관계로싸홈한결과전긔김씨는자긔본집에가잇든것이라더라(장연)

蔚山郡當局의 苛酷한處分
십삼호주류업자에게 일시에폐업처분을해

경남언양(彥陽)읍에잇는 주류제조업자(酒類製造業者)십여명은 지난이십팔일부터는 돌연히울산군(蔚山郡) 당국으로부터 폐업처분이 나리게되엿슴으로 그들은 엇지할줄을모르고 모다언양면소에 들어가서 무슨리유로폐업을 시키느냐고 또는업는처디에 만흔가족을 다리고장차무엇으로 살어가라 느냐고울며불며 하는것은 참아볼수업는터이라는데 그에대한 내용을듯건데 울산군당국에서는 언양읍내에 허러커잇는 주류제조업자중에 매우극빈한자 오직술영업으로서 만흔가족을다리고 근근히살어가는 십삼명에게 폐업처분을 나리엿는데 군당국으로부터 리유를발표치 아니햇슴으로원인은 자세히알수업스나 폐업을당한 여러사람은 파연압길의생활이 정말 망연할뿐아니라 여러가지를 오직술만시에 희망을부치고 지나오든터에 또밧게이런처분을 당하고보니 모든것이 더구나 추석(秋夕)이 박두한이째를 당하야 참으로말할수업는 타격이라하며 이에대하야 군당국처치가넘어나가혹하다고 일반은말하더라(언양)

不潔한江景水道
市民의怨聲이漸次沸騰
돈내고더런물먹는것보다 차라리그전움물이낫다고

충남강경(忠南江景)에서는막대한 비용을드리여 수도가된후얼마되지안이하야 물빗이 흘탑업는 간장빗가티 더러워서먹을수가업다는데 벌서 월여나되여도아모말업시 점점 더하여질뿐이라하야 시민의불평이 심하되수도관계자와 당국은 아모조처도아니하고 근일에야 도위생과에서 수질(水質)를 검사한결과해롭지는안타고만한다는바 언제까지든지 그런물만주랴는지 그러면움물은 가려안즈면 빗은밝으니 차라리 그것이낫다하야 시민의불평이심하다더라(강경)

竹山面民 再次憤慨
비행면서긔를 면장을식혓다고

긔보=전북김제군죽산면(全北金堤郡竹山面)[illegible] 나칠월이십삼일에 동면민 대회를개최하고 그들의비행을 적발 [illegible] 교섭위원을 청거하야 그들의비행을 일일히 적발하야 동군뎡에진정하얏든바 검군수는 덜더히됴사한결과 사실이면 엄정한징치를하겟스니도라가서 안심하라함으로 동 교섭위원과 일반면민들은 그회답이 오기를 고대하야오다가부득이다시전북도뎡에 진정서를데출하얏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보름을으면 동면서긔리락겸(李樂謙)(비행서긔중안사람)으로 면장을임명하얏다는데지난십오일 동군뎡에서는 교섭위원 리은섭(李殷涉)씨를불더말하기를그진말을됴사한결과 전무가 모다틀리는점이만타고하엿다는데일반 농면민들은 그진상을 철뎌히됴사하야 징치하야주기는고사하고도리혀 비행서긔로 면장을임명한은불단면민을누시한일일뿐아니라 그사실을알수업다고 군[illegible](김제)

沒人情한礦主
광부가중상당한것을 숙소로보낸후에못본데

평남 성천군 삼덕면삼덕리(成川郡三德面三德里)김상범(金相範)의 집에묵숙하는김홍익(金弘益)(三六)는 부근뒤人산에잇는 일인구보(久保)가 경영하는광산에서 광석운반에 종사하든바 지난이십륙일 오전 구시경에 광석을지고 머리위길가량 되는층대를 올라가는길에 압헤서올라가든 광부의 광석이쏘다지며 전긔김홍익의 머리를나리때린까닭에 김홍익은 광석을 올뜨아진채로 사다리에서 떠러져서 머리와허리를 몹시상하야 일시혼도한것을 가티일하든 사람이구원하야 다시정신을 차리게되엇다는데 구보광산에서는 머리에대강한붕대를 하여서 인부들로하여금 전긔숙소에 돌려보내엿슬뿐이오 그날오후가 되도록그와가티 중상을당한 사람에게하등치료를 하여주지 안흠으로부근주민들은 광주의 몰인정함을비난한다더라(성천)

彥陽面事件 陳情者가檢事局
고소를당한모양

경남 울산군(蔚山郡)언양면(彥陽面)에서는지난삼월부터 면서기오재영(吳宋泳)김상수(金常洙)량인으로부터 부꺼가월어나반세평이 비등하엿든바 요사이에와서 붐의에가서 김상수와언양면동부리(東部里)권의정(權宜正)량인이 부산검사국에인치되야잇는중인데 사실인즉 김상수는 오재영이가 서긔로잇슬때에공금횡령、공문서 위조등십여가지죄목을 들어 직접상급관령에진정서를 데출하엿든바 이에대하야 오재영은 부산검사국에고소를 데긔한모양이며 권의정은 역시김상수와 공모하엿다는 혐의인듯하며 이에대하야 여러가지 복잡한 사실이만흔것은 일반이 긔록할수 업거니와 일반의 여론을종합하여보면 김상수가 진정한오재영의 죄목중에사실 피해자의립증서를 직접바더온것이잇다더라(언양)

軌道에서낫잠
하마터면죽을번

지난이십팔일오후세시사분온양온천(溫陽溫泉)착렬차가온천역부근을 진행할때에 온천리에사는리희우(李喜雨)라는얼네살된아이가선로(線路)에누어낫잠을자는것을 긔관수가 발견하고긔진행중에 긔차를 뎡거식혓슴으로다행히무사하엿다더라(아산)

本報讀者優待
五割引診療券
청주지국에서
한달에세번발행

약한달전에 신설된 청주읍내본뎡오뎡목(淸州邑內本町五丁目)사십오번디금상의원(錦上醫院)에서는 특별히 조선일보독자제씨를위하야 청주지국관내 본보구독자 여러분에게 위선양효로오는구월까지 보통치료비의 반액으로써 특별한대접을 할터이라는바 생활이 곤궁하신분에게는형편에의하야 약가 실비로도치료해드릴터이라는데 이에대한진찰권은 구월이일 동십오일이십일등삼차에 분하야 본보란외에 박어들볼터인즉 독자 여러분가족에 한하야 일매일인한하고(일개월동안에 순차세분까지) 이용할수잇스며 일인일차가 아니요몃번이던지구월까지리유될 [illegible]로만에리용해주[illegible](청주)

資本主의專橫!
運轉手一人에 二千圓식의保證人

慶南居昌郡一帶各富豪의出資로組織된居昌自動車株式會社에서는社長李揆均氏以下一般社員의決議로運轉手採用에對하야前例에일죽보지못하던苛酷한規例를制定하야自今으로는運轉手의身元保證人을各二人으로하되二千圓以上資產者를立證치아니하는境遇에는絕對로採用치못하겟다고各運轉手에게秩序가끈을할致함으로現一般運轉手界에서는不平이적지안타더라(晋州)

院里에女子夜學

慶北英陽郡石保面院里洞耶蘇教會에서는附近女子의智識을啓發키爲하야去十七日부터女子夜學會를設立하엿는데學生은벌서三十名이나되며講師金은一分도밧지아니하는데維持費는此를贊助하는人士三十餘名의每月五十錢式을義捐하는外에敎會經費中으로補充한다더라(英陽)

靑年側質問에 結局罪狀을自白
惡校長惡訓導도良心이잇는듯
◇鶴城公普事件續報

問題에問題를거듭하야世人의耳目을聳動케하든慶南蔚山兵營鶴城公立普通學校長과同日人訓導非行事件에關하야는이미累累報道하엿거니와이제地方靑年이徵起하야積極的으로事實을質問한顚末을詳報하건데最初同窓會에서徵起한問題는學務委員會에서委任을바다지난二十四日에直接當事者인宮崎校長과行實訓導에게

事實을 質問하얏스나學務委員에게는自己들의自衛策上事實을否認하야何等의自白도업슬뿐아니라그反面에問題를永永防埋하려는高壓的手段으로同窓會交涉委員을對하야別別妄說로威脅하고그들을恐懼케하야始末書外지要求한後奸猾한手段으로滿場을和解에붓치엇는데이所聞을探知한地方靑年들은그들의罪狀이確然함에不拘하고敎育者로서참아못할欺瞞手段으로反抗하며威脅하는奸惡한手段을憤慨하야學校當局者를徹底히糾彈하기로決意하엿슴으로一般의

民心이 더욱激昂하든바數日을두고紛紛한世評속에서充分한調查를맛치고去二十八日에代表數人이直接同校長과訓導를尋訪하야다시事實의有無를一一히質問한즉그들은抗拒할餘地가업시良心에苛責을밧음인지

그들의本質인阿附的態度로左記의可驚할罪狀을全部自白하고百拜陳謝하엿다더라

◇自白條項

一、宮崎校長에關한件

(가)後援會費中으로購入한蓄音機를自家에常置하야專用或은外人에貸與한事

(나)學校備品인册床、書籍、寫眞板等을自家에常置하고變形使用한事

(다)學校建具를濫取하야自家에使用한事

(라)妓生을두고女子生徒를比하야詐論한事

(마)在學生以外의兒童이『색당』을使用함에何等의訓戒도업시毆打한事

(바)平素에生徒를對하야辱說을濫用한事

二、行實訓導에關한件

(가)女子生徒에게對하야卒業後就職處가업거든妓生或은料理店酌婦노릇을하라고한事

(나)女子生徒를自家에다려다가花鬪를가라친事

(다)女子生徒에對하야溫突에안저면局部로부터溫氣가드러가서胞胎된다고말한事

(라)料理店兒童이在學生을對하야屋號를代呼한事

(마)擔任事務를處理하느라고學課時間을怠慢히한事(兵營)

警官席設備가 不完全하다고말성
殺氣騰騰한裡里思想講演會

湖南線裡里靑年會主催로京城朴憲永氏를招聘하야去二十八日午後九時에裡里私立幼稚園內에서講演會를開催하엿는데定刻前부터聽客은滿場을이루엇섯는데本來가貧弱한우리로서는엇던團體를莫論하고모든設備가不足한處地이매當夜에臨席한警官은警官席設備가不滿足하다는條件下에瞋目叱咤하며官警席設備가如斯히不滿足한講演會는許할수업다느니又는演士압헤잇는『테불』를이리저리잡어다리는等모든行動은一般聽衆에게만흔反感을주어場內空氣는一時昂奮되는同時큰말성이되다가同十時頃에演士는登壇하야社會의進化와發達이라는演題로熱辯을吐하야聽衆에게만흔늣김을주고同十二時頃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裡里)

演藝大會
無産大衆을爲하야
美妙한音律에 陶醉된三千餘觀衆

南鮮은山으로海로더위를피하야가진享樂을마음대로바들수잇건마는無產大衆들은그날그날의生計조차如意치못하며더구나三伏의苦炎과모진모긔들은오막사리살님을말할수업시괴롭게하는이때東萊市民은또한今番水害로말미암어집과모든生計의길을일허버린悲運에우는同族을爲하야千餘圓이란巨額을支出케되엿슴으로[illegible] 하야커바렷다그러나그들도사람은사람이니엇지人生의樂을알지못하리오오죽環境의境遇가許諾지안흠으로뜻아니한괴로운生活을계속하는바이다이에本報東萊支局에서는지극히적은精誠이나마힘을다하야慰安코자지난二十四日午後八時에東萊靑年會와東萊女子靑年會後援下에東萊公普校場에서市民慰安演藝大會를열엇는데無慮三千餘名의觀衆들은整然한順序의進行을따러나타나는美妙한音律과天使가튼춤노리에모든悲運에엇매엿든괴로운생각을일허버리고한업는法悅에陶醉되여熱狂的歡呼를부르지즈는속에同十一時頃에空前의盛況으로閉會하엿는데더욱히本支局과一般市民의感謝하는바는東萊新進女子靑年諸氏의本支局의微意에同情하야自進出演한고마운뜻에對하여는滿場의感謝를一般이表하는바이라더라(東萊)

『始末書를써야』 雄辯會를許한다
延安雄辯會中止

지난二十七日에延安留學生親睦會의主催로雄辯大會를開催하고자모든準備를맛치고開催當日에當地警察署에屆出하야接受가되매即時廣告를돌린後主催側과演士들도돌『럽』업슬줄로알앗더니얼마後當地警察署에서主催側을불러말하되雄辯會를하려거든主催者와演士들의始末書를써[illegible]라함으로主催側은아즉延安서그러한前例가업는말도듯지못하엿고[illegible]엿스나警察署에서는絕對不聽함으로主催者와演士들은定刻인午後八時가지나도록始末書를써주지[illegible]雄辯會는[illegible]一般聽衆은[illegible]不得已中止하매數百名聽衆은失望하고히헤여젓다더라(延安)

新興靑年總會

咸南永興郡新興에잇는新興靑年會에서는豫定과如히지난[illegible]日에該會館內臨時總會를開하고여러가지決議가잇슨後缺任員五人을選定하고散會하엿다는데選定된任員은左와如하더라

決議事項

一、永興公立農業學校建築費를各面에配定募集함이우리敎育界를爲하야實로感謝한일이다하나其募集의方法이넘우나高壓的이고專制이니우리는그專制를그대로바들必要는업다한즉이에募集의方法을고칠줄뗘一般面民을無視치안토록하라고야各關係當局에交涉委員을選하야交涉케할일

但交涉委員은執行委員에서選擧하기로함

一、會館建築을期成키爲하야建築期成專門委員會를組織할새該委員選擧는執行委員에게一任하다

一、[illegible]執行委員 [illegible] 崔東鉉 [illegible] 崔光[illegible]

一、少年少女雄辯大會를開催할일 (鍾興)

希文里塾[illegible]建築
有志의同情으로

[illegible]面昭、杉山里에[illegible]有志의讚意[illegible]하여오든바校舍[illegible]으로[illegible]思하든바지난二十五日에同校舍建築[illegible]朴東協氏의[illegible]左記[illegible]하야來十月一日부터[illegible]着手하기로決議되엿다더라

昭山里中百圓崔寬叔 朴正周 朴是格各二十圓 朴正三 趙元叔 金性甫各十圓 安昌淳 朴文現 李英秀 朴致秀各五圓 朴及文 趙信叔 朴熙植 朴[illegible]各三圓 朴秉煥 一圓(鍾興)

長光自動車開通

長城光州間自動車는過般洪水로因하야交通을停止하엿든바線路修繕이竣工되엿슴으로다시開通되엿다는데長城邑內에서發車時間은如左하다더라(長城)

午前八時四十分發

午後六時發

水害救濟劇團員을 無理毆打한巡查
朝鮮人은造業敎化라는侮辱까지

全北茂朱郡少年會에서는本報茂朱支局後援下에罹災同胞救濟劇을組織하고各面을巡回하다가錦路에忠北永同郡龍化面月田里에到達하야興行할旨로團員金環培君을先히同面警察官駐在所에派遣하야許可願을提出케하엿는바不許함으로結局은本報茂朱支局記者李東順氏로부터交涉하야興行한後回路에團員金環培君은同郡龍化面駐在所主任巡查川原에게無理한毆打를當하엿는데그內容을들은즉團員金環培君은回路中戲樂的으로『작은홍겨매』를치다가그릇하야뒤를따오든前記主任巡查川原과朝鮮人巡查에게[illegible]安한마음으로오다가[illegible]一同이쉬고잇는데主任巡查라는川原은닷자곳자로金環培君에게無理한行動으로[illegible]無數한脅迫을하며[illegible]可를아니내여주엇다고감정으로팔매를집이아니냐하며너이는水害救濟를目的함이아니다[illegible]취하고作亂삼아다닌다느니[illegible]이업느니[illegible]務를任意로하얏다는데[illegible]一同은憤慨하얏스나[illegible](茂朱)

靑松에도染病
患者가六名

慶北靑松郡縣西面豆峴洞에서는本月十日十一日兩日間에發生된腸窒扶斯患者가六名이라는데警察署와面當局에서는豫防에努力中이라고(靑松)

禮山에 製絲會社
創立準備中
朝鮮人의經營으로

고처다는時期를當하야面鑛繭貿易외誠本이忠淸南道內로드러옴으로道內의繭價는모다原料品이그대로外地로나가게되여이를恒常遺憾으로생각하든禮山에잇는成樂奎金鎭善外諸氏의發起로數百萬圓의資本을出資하야禮山에製絲會社를創立하리라는데九月上旬에創立總會를열고저方今準備에奔忙中이라더라(禮山)

自己個人의便宜를爲하야 面所位置를專斷決定한面長
그리고敎育에는冷情한態度
◇楊平郡江下面沈面長의非難

楊平郡江下面事務所는去番洪水에만흔被害를當하엿슴으로來頭또엇더한水害를當할는지알수업슴으로이지음에位置를變更하기로되야一般面民에게建築寄附金을募集한다는데이에對하야面長孝植氏는그面의中央도안인自己집겻헤다가建築한다함으로一般의非難이만히잇스며또한培英塾이라는그面의有望한敎育機關되는模範書堂도역시去番水害를몹시當하야다른곳으로移轉하지아니하면아니될現狀인데이에對하야學父兄某氏가沈面長에게交涉한즉그學堂외지는干涉하지아니하겟다하고冷情히學校를도라보지아니함으로一般은沈面長의그러한[illegible]에對하야不[illegible]長은新任된[illegible]하야잇슴으로楊平郡廳에서는이일을解決키爲하야지나간二十七日에二日間豫定으로同面에出張하엿다더라

面民大會開催

楊平郡江下面靑年會와有志一同은그面長의非難事件에對하야面事務所移轉問題와培英塾建築問題의解決如何를爲하야江下面靑年會와面民들은面民大會를開催케될는지도알수업다고某氏는말하더라(楊平)

平海留學生會消息

江原道平海에잇는內外留學生들은八月五日에平海公普校에會集하야[illegible]

會長黃允斌 幹事李日出 [illegible] 親睦部長孫在明 文藝部長李鍾晦 運動部長李圭鉉

去十五日午後八時에는平海留學生會文藝部主催로平海公普校講堂에서講演會를開하엿는데多數한男女聽衆에게만흔感興을주엇는데當日演士는다음과갓더라

尹億宰 金斗鎭 黃允斌 李日出 孫在明 朴資源 潘升鳳 李鍾晦

지난二十二日에平海留學生會親睦部主催로懇親遊會를開하엿는데南大川의白沙와綠陰사이에서興味津津한裡에一日을보냇고지난二十五日에는平海學友會總會를開하엿는데諸般事務處理後水災同胞救濟金二十圓을義捐하엿다더라(平海)

熱誠의同情
女子는비녀반지까지
靑年巡劇團에게

慶北聞慶郡加恩面에잇는加恩靑年會에서는同會의會館을建築하기爲하야面內谷洞里에素人劇과講演隊를組織하야가지고約十餘日間巡廻하얏다는바各里人士들은熱狂的後援이잇슴은勿論이어니와만흔同情金이잇슨中에도特히嘉尙한事가有한것은그와가튼山峽에서女子의同情이만엇다하는것인데金太順、韓明順두女史는말하면家貧할뿐아니라일즉이그男便이死別하고四顧無親한孤獨한生活을함에도不拘하고今番巡劇團을爲하야自己가平生을사랑하든指環을버서주며現在는이것밧게업스즉이것을바더두면後日金錢을가지고가서차저오겟다함으로同劇團에서는밧지안켓다고無限히辭讓하얏스나두女史는기어히주고감으로할수업시바덧다는데數日後에金五圓式을가지고와서차저갓슴으로近洞에서는두女史의社會에對한熱情이만흔것을稱頌不已한다는바其時에의氏名과金額은다음과如하더라

趙大善百圓 鍾長壽 金東勳 谷三十圓 金永宰 鳳岩寺 中槐里 金東爽 中成烈 金錦勳谷二十圓 金克漢 張聖 金商楫 趙命九 瓦也洞各十五圓 趙道泳 李源萬 曹秉武 金聖樞 權應度 李洙宰 李延鎬 朴永楠 趙南英 金南永 徐永錫 金東儿 徐洪錫 金駒 徐禹錫 金八用 李昇宰 卞守用 泥池里 金在龍 金永駿 李廷院 金學洙 樂學伊 金柱河 安明鎬 金振夏 李益基 張載弘 金在鶴 南延浩 金允三 金商基各十圓 金蓀永八圓 琴龜淵七圓 鄭世德 崔鶴壽 卞文圭 申鳳湜 各六圓金延鎬 閔舜鎬 鄭漢永 張寅植 申正均 李廷說 金夏鎬 韓明順女史 朴應和 朴重和 李春宰 朴性曦 金商甲 李鳳熙 李與宰 李南基 張相漢 朴龍伊 許垻 李通石 鄭錫淋 李康德 金光漢 韓癸東 鄭行喆 林栽堯 金曉淵 蔡岩回 卞賢圭 島內里 崔敬伯女史 金錫永 金濟永 李寅九 金東烈 金東夏 許命九 申鉉領 李容圭 李鼎九 李海宰 李源濬 李起喆 金慶玉 李潤教 沈述際 朴東夏 朴慶信 金敎夏 李時榮 蔡李濟 南義元 李聖達 南啓賢 李文宰 黃炳秀 李鉉永 李錫柱 余九王 余仁鎬 金浦伯各五圓式 琴鳳淵 禹同白各四圓 金鶴基 黃根早 金在濱 林泰國 李丙德 林石根 南延鎬 黃泳鎬 李承昱 李商雨 金聖鎬 金在傳 朴光戴 申石均 金[illegible] 李[illegible] 申哲 李源斗 朴起[illegible] 李中揆 金永[illegible] 南泌元 [illegible] 李舜雨 南致萬 [illegible]

汝女史 翁三鉉 金鍾濂 金命洙 金鼎洙 李丙寅 李敬五 鐘炳國 各三圓 周添泳 宋在熙 金尙潤 金允漢 申永 白玉伊女史 金東昱 金世孝均 李丙海 李延浩 金太順女史 韓東昱 韓錫祚 金永祚 徐廷恒 金錫洞 金淵酷 朴圭哲 吳夢龍 朴貞和 柳昨永 金有用 金永漢 金日永 崔準連 申咸均 安大鍋 朴龍基 裵章煥 林秉鳳 池膺龍 金旭相 徐廷寅 李源中 孫世九 安永鎬 吳尙己 李丙出 金大用 尹有五 南致和 金復在 金七萬 柳永燮 洪秉寬 李康燮 申鉉直 林孝洲 李昌揆 金成學 蔡洪郁 金松根 蔡洪大 朴基來 朴淑夏 蔡洪喆 李勳雨 李七用 李渭占女史 李泰永 余石舜 李根成 金順敬 金炳七 鄭錫圭 朴慶秀女史 許泳 姜璇周 南廷睦 金文燮 李根容 余光烈 李賢 權永集 金在鍊 尹岩宇 張洙稷 林栽應 蔡漢宗 安溁鎬各二圓式 徐永漢 金千一 金學圭 金甲成 金在錫 李萬仁 閔應鎬 趙忠九 宋元浩 鄭致億 申百龍 李晃和 李永求 姜泰熙 鄭俊燮 洪炳錫 金完永 鄭南運 趙南植 李春子女史 蔡文楠 金漢性 蔡寅星 鍾珊洪 李股寧 郭儀榮 李宗植 洪炳翊 金弘基 林栽雨 鄭南石 朴一用 丁黯石 蔡鴻九 沈相根 沈吉詢 林栽五 盧國壽 金南壽 梁秀先 朴八用 韓十一 高順五 李根寧 金雨永 金鍾華 李再天 金龍德 金明洙 金鍾韓 李丙順女史 鄭一福女史 金永泰 金確在 金大鳳 朱英根 金芝永 金震永 金魯漢 徐黠

金 金旺介 申慶熙 趙南斗 李忠榮 申甫均 金在慶 趙崙九 申泰均 鄭載汝 姜斯馨 鄭希彥 李康達 辛容福 李今龍 李相奉 郭魯鎬 李起白 姜弼周 李起郁 朱舜錫 安星鎬 李康玉 李仁承 郭魯鍮 李鍾崙 金六鉉 金泰鎬 金十一 黃奉國 李廷稷 洪熙佑 李萬揆 李璣淳 申宗均 金士有 金熙鉉 李春萬 金德老 金有實 崔又凡 成基煥 金準出 金八龍 李廷九 金南龍 金七鳳 金內龍 李文宰 李海文 甘申成 李四興 鄭黯伯 白紅鳳 南承元 印正柔 洪基厦 鄭元澤 金商鎬 李成洙 金商榮 金命永 鄭洪先 洪炳三 申龍達 申龍植 申鍾植 申承烈 申元植 林基貞 林琬珠 尹取仁 金炳泰 金貫永 蔡根植 林星七 金九萬 具福禮 李務用 南延學 鄭魏達 鄭載浩 宋守欽 尹鵬伊 朴龍郁 鄭百用 朴順石 朴世權 李忠源 李見求 姜錫漢 朴希彩 金鳳九 張福岩 張永錫 李元宰 李起南各一圓式 南洙元二圓五十錢(以下略)(聞慶)

◇寸鐵◇

◇【价川】 平南价川郡外東面鳳下里에居住하는金某의妻는近處玄某의누이에게똥을먹엿다 먹은자나먹인자도 구역질지마는 똥만들어도 [illegible]질한다

◇【江景】 停車場勤務하는池上巡查는 來往客에게依例히『기미』라는말을쓴다고非難이만타는데가엇지되얏기에『기미』만보힌가?

◇【羅州】 愛友團主催少年庭球大會에 鄉校里富豪[illegible]는 一圓五十錢을同情하며 自己子四歲兒의名義로하엿다고 그와이는二十餘歲만되면同情을만히할일이[illegible]

水災義捐金
조선수해리재구제회에온것
(南大門通三丁目續)

金十五圓式野野村謙三 加藤潤商店 金十圓式 ホーン商會 金鎔觀 永榮佐四郎 野村絹店 [illegible]丞 辻村榮助出張所 戶倉商店 大家正男 齋藤嘉與次 後用留之 北原佐代重 西本藤二 大塚辰三郎 宋東秀 熊澤利十郎 松原鐘藏 金八圓松原岩次郎 金五圓式 崎山仁伏藥房 竹內陽太郎 石川庄ヶ郞 加藤기요 貞木緻雄 足立政太郎 太平組 [illegible] 閔弘植 伊東彌市 橋本周輔 若[illegible] 三圓式前田淺市 張熙完 金[illegible]原商店 テキサス油京城販賣組合 大三商店 ツサギタビ支店 金二圓式山本喜太郎 瀧川喜一 無名 鶴見運送店 櫻井明十郎 毛利基 共成商會 徐元淳 李祐鉉 高重熙 金斗興 梁文煥 金一圓式中村나가 田中勘次郎 今古賀米吉 森川商店 坂本스미 裴聖寬 李光楠 日昌商店 西田精肉店 木內林藏 宋榮善 吉野商店 金珪燦 李秉和 崔暎 梁昌煥 金在漢 宋道憲 三信商會 洪慶祚 李淳一 太德玄 容漢 李華汝 林蓍奎 金德淳 金五十錢式林殷洪 金春弘 金[illegible] 徐相旭 金相熙 干道洪 金顯宗 張基永 李慶烈 朴枝善 李德俊 南一堂 漢南商會 柳雲烈 金明根 崔順振 安昌根 李元汝 金鍾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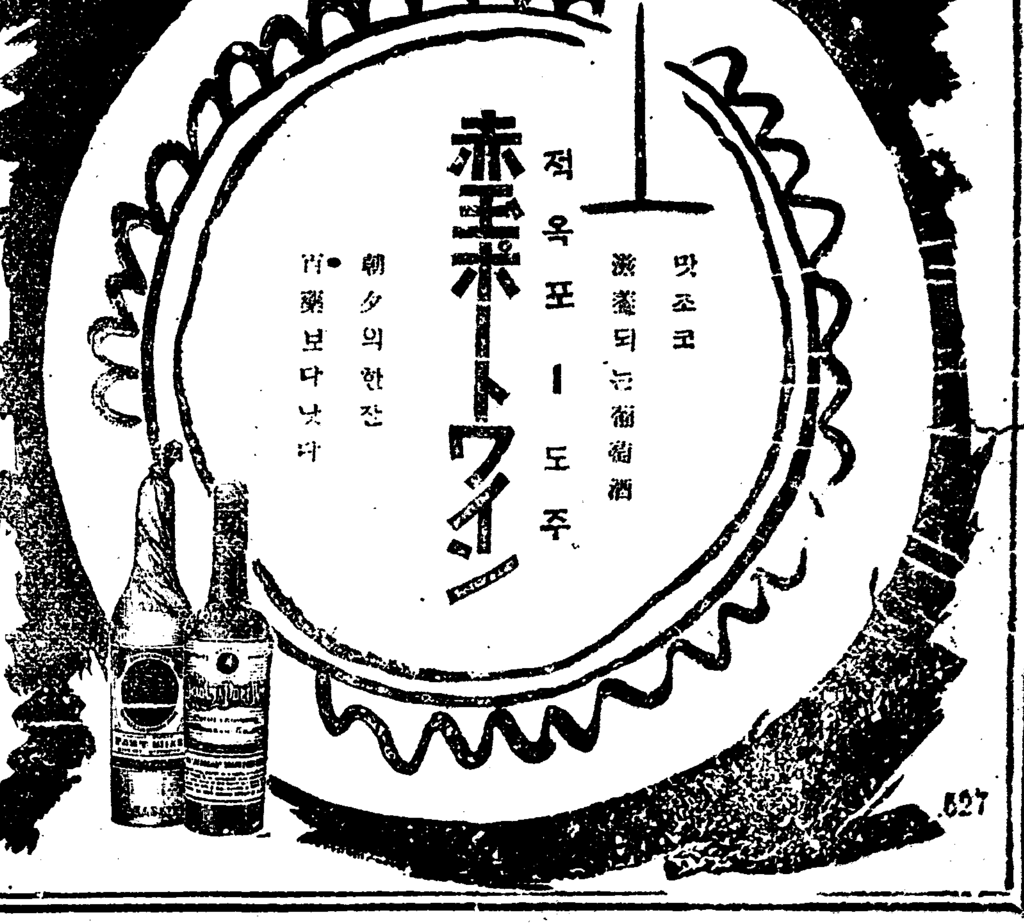
金八百二十一圓三十錢朝鮮銀行朝鮮內各店有志 金百五十圓羅南旭香會 旭香會 旭鈴會代表貴鉉 一外一名 金五十六圓朽木際尼利市佛敎各宗和合會

計六千三百十九圓

累計金十四萬千七百二十七圓十三錢

(西大門町一丁目)

金五圓式宋明浩 張命吉 李應均 金三圓式金寧培 方元培 金二圓式沈宜燮 朴肆赫 [illegible] 蔡銘煥 劉亨俊 [illegible] 沈宜甲 金一圓式 玄剛泰 崔永稲 延文九 廉源 尹秀映 崔廷潤 嚴昌一 柳志淵 朴禹浩 崔井漢 朴基書 鄭龍煥 崔斗鎮 朴俊基 鄭柱淵 金元鐘 金光淵 朴希明 張文煥 [illegible] 淳淵 高嶽元 李宜榮 金重煥 申泰鐘 徐廷斗 [illegible] 趙明[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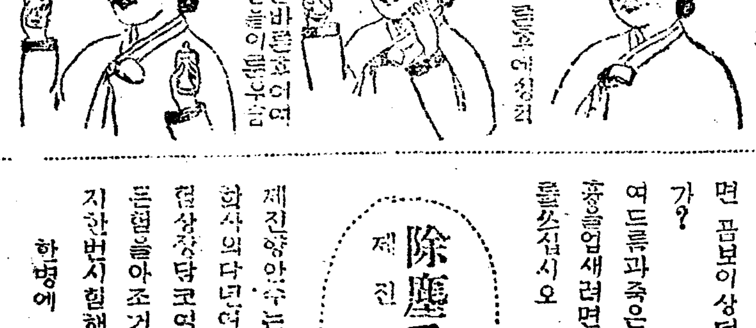


旅行에仁丹
食後에仁丹
惡疫에仁丹
消化と毒けし

宮內省御用品
仁丹의体溫計
西博士完成의
仁丹 니 다 는 약
愛用하심을바랍니다

八月二十九日부터特選番組公開
米國폭쓰會社 寶寫喜劇 폭쓰유니-쓰 全一卷
米國폭쓰會社 喜劇 二人의서이 全二卷
월니암·렛설氏主演 人情劇 脫營者 全六卷
米國회바스會社特作 눈지오·마라소마氏原作 무자노일바데니氏主演 文明利器 라지오將軍 全六卷
冒險猛鬪大活劇으로定評잇는
豫告
米國폭쓰會社超特作 英國文豪헷진스氏原作 藝術映畫 겨울리오면 全十二卷
驚倒的大活劇 震天動地 全七卷
大異的名篇 단테地獄篇 全卷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師範學校·各中等學校受驗生必讀
入學準備 受驗の要訣
進呈
印刷及郵稅實費로送料共二錢切手十枚를封入하야申請하시는이게는二千名에限하고一一히進呈하겟슴니다
(申込書에는住所와氏名을楷書로正確히게쓰시고또新聞名을記入하야보내십시오)
申込所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一○七 京城出版社

◆美人되는除塵香顔水◆
◎숙녀귀부인께!!

얼골에여드름과죽은깨가만흐면 곰보이상더ㅣ 흉치안슴니가?
여드름과죽은깨를업새고모든흉을업새려면먼저제진향안수를쓰십시오
제진향안수는세계의우수한공학사의다년연구한결과실디시험상정당코여드름과죽은깨모든흠을아조거근항니다누구든지한번시험해보시오
除塵香顔水 제진향안수
한병에 一圓五十錢